KOTRA자료 20-042

2020 국별 진출전략

스위스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Contents

Ⅰ.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 3
1. 개요 ····· 3
가. 시장 전망 ····· 3
나. 주요 경제지표 ····· 3
2. 2020년 주요 이슈 및 전망 ····· 5
가. 2019년 10월 총선 및 EU와의 관계 변화 ····· 5
나. 스위스기업의 글로벌화 가속화 ····· 5
다. 금융 산업 및 제조업 4차 산업혁명 추진 ····· 6

Ⅱ. 비즈니스 환경 분석 ····· 8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 8
2. 시장 분석 ····· 11
가. 시장 특성 및 전략적 가치 ····· 11
나. 교역 ····· 12
다. 투자진출 ····· 15
3. 한국과의 경제 교류 및 주요 경협 의제 ····· 18
가. 교역 ····· 18
나. 투자 ····· 19
다. 주요 경제협력 의제 ····· 20

Ⅲ. 진출전략 ····· 22
1. SWOT 분석 및 전략도출 ····· 22
2.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 23
3. 한-스위스 경제협력을 통한 진출전략 ····· 26
4. 진출 시 유의사항 ····· 31

첨 부
1. 수출유망품목(상품) ····· 32
2. 수출유망품목(서비스) ····· 34
3. 2020년도 KOTRA 주요 사업(잠정) ····· 35
4. 2020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 36

부 록
對스위스 K패키지(양국 간 상생협력방안) ····· 37

Ⅰ.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1 개요

가. 시장 전망 : 2018년 상승 후 2019년부터 성장세 하락

2018년 2.5%에서 2019년 1.6% 성장 전망

○ 경제성장 : 2018년 2.5% → 2019년 1.6% → 2020년 1.7%

구분	내용
대외 요인	• GDP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수출 증가율 감소(2018년 2.3% → 2019년 0.9%) - EU, 중국 등 주요 수출 시장 침체로 2019년부터 경상수지 감소 예상 - 스위스 프랑화 강세 지속 : 중앙은행의 마이너스 금리 유지에도 불구하고, 미국, 유럽의 경기침체 및 통화 완화정책으로 위험회피자산으로 여겨지는 스위스 정부 채권에 대한 외국인 투자 증가
대내 요인	• 정치, 경제적 안정 → 소비, 투자 등 내수는 안정적(증가율 2018년 0.2% → 2019년 1.3%) - 정부의 -0.75%의 마이너스 금리 등 통화 완화정책 - 낮은 소비자 물가, 재정 및 경상수지 흑자, 낮은 실업률 유지

EU와의 긴장 고조 및 스위스 프랑화 강세는 성장에 리스크 요인

○ 스위스-EU 긴장 고조로 교역, 투자 여건 악화

– 2015년 총선에서 보수 우파 스위스 국민당(SVP)이 1당으로 부상한 이후, EU 시민의 이민노동 제한, EU가 주장하는 EU-스위스 Framework 협정체결 반대 등 반EU 정책 확산

○ Brexit, 유로 존의 경기침체와 함께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스위스 정부 채권에 대한 해외수요 크게 증가, 스위스 프랑화 강세

– 2019년 8월 환율은 1유로 : 1.12 프랑으로 지난 2년간 최고 강세를 보임

나. 주요 경제지표

주 요 지 표	단 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인 구	백만 명	8.2	8.3	8.4	8.5	8.5	8.6	8.7
명목 GDP	십억 달러	710.3	679.5	670.4	679.2	705.3	708.3	732.0
1인당 명목GDP	달러	86,622	81,867	79,810	79,906	82,976	82,360	84,138
실질성장률	%	2.5	1.3	1.6	1.7	2.5	1.6	1.7
실 업 률	%	3.0	3.2	3.3	3.1	2.6	2.3	2.5
소비자물가상승률	%	0.0	-1.1	-0.4	0.5	0.9	0.5	0.8

재정수지(GDP대비)	%	-0.2	0.6	0.4	1.3	1.2	0.5	0.4
총수출(상품)	백만 달러	329,300	303,400	315,800	313,500	332,100	322,300	332,000
(對韓 수출)	〃	2,755	2,454	2,350	2,735	3,037	2,919	-
총수입(상품)	〃	273,900	249,700	266,300	264,500	274,100	271,000	286,400
(對韓 수입)	〃	314	1,485	558	488	497	601	-
무 역 수 지	백만 달러	55,300	53,700	49,500	49,100	58,000	51,300	45,600
경 상 수 지	〃	59,900	76,500	63,200	66,600	72,200	68,000	66,000
환율(연평균)	스위스 프랑/US$	0.92	0.96	0.99	0.98	0.98	0.99	0.97
해외직접투자 (Inbound)*	억 프랑	-2.59	839.32	864.68	-339.69	-	-	-
외국인직접투자 (Outbound)*	억 프랑	78.85	769.37	595.16	383.52	-	-	-

자료 : Economic Inteligence Unit(EIU), Swiss National Bank(해외직접투자/외국인 직접투자), 한국무역협회 등 2019년 10월 3일
* 2019년, 2020년은 전망치, FDI 관련 통계는 2017년·CHF 기준으로만 공개됨

2 2020년 주요 이슈 및 전망

- 2019년 10월 스위스 총선 결과에 따라 EU와의 관계 변화 가능
- 스위스 제조업 글로벌화 가속화
- 금융 및 제조업에서의 4차 산업혁명

가. 2019년 10월 총선 및 EU와의 관계 변화

스위스의 대(對)EU 정책

- 2015년 총선에서 보수 우파 스위스 국민당(SVP)이 하원에서 1당으로 부상하여 연립정부 내 보수 세력 확대
  - EU 시민의 이민노동 제한 등 반EU 정책 시도
  - EU가 주장하는 EU-스위스 Framework 협정체결 거부
    - 스위스는 EU와 20여 개의 조약, 100여 개의 협정을 체결하여 상품·서비스, 노동,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단일 시장 형성(2002년)
      * 스위스는 중립국 전통 및 주권 유지를 위해 EU 가입 포기
      * 스위스는 수출의 60% 이상을 EU에 수출하고 있고 산업, 자본, 인력 시장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 EU 시장 의존도 높음
    - EU는 EU의 관련 법규를 스위스가 포괄적으로 수용하는 포괄적 Framework 협정으로 대체 주장
      * EU는 비회원국에 대한 EU 시장 개방의 전제조건으로 EU의 관련 법규의 포괄적 수용 요구(All or Nothing)
  - 2019년 10월 20일의 스위스 총선에서 SVP는 12석을 잃은 반면, 진보좌파 녹색당(Green party)이 17석을 추가 원내 4당으로 부상함에 따라 보다 유연한 EU 정책으로 전환 가능
    - 신정부는 EU와 EU 시장접근을 위한 포괄적 협정체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나. 스위스기업의 글로벌화 가속화

스위스의 제조업 현황

- 스위스는 소규모 개방경제로 원자재와 소비재를 수입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제품을 수출하며, 스위스 제조업(전기, 수도, 가스 등 포함)은 2018년 총부가가치 생산의 25%를 차지하였고, 정밀기계, 제약, 시계 산업 등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 보유
  * 제조업 Fortune Global 500 기업 : Nestle(식품 66위), Roche(제약 167위), Norvartis(제약 175위), ABB(기계 286위)
  * 분야별 히든 챔피언 : Rolex, Swatch(시계), Sonova, Synthes(의료장비), Schindler(기계), Syngenta(농업)

스위스 제조업의 글로벌화

○ 스위스 제조업은 스위스 프랑화 강세 및 고임금, 글로벌 시장 및 공급망에서의 신흥국 부상과 유럽 경제의 장기적 부진 등과 함께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해외기업과의 협력, 해외투자진출 추진

– 2017년 2월 스위스 전자기계협회(Swissmem)의 회원사 대상 조사 :

* 스위스 제조기업의 절반 이상이 생산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외로 이전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응답, 46%는 3년 이내 해외로 생산시설 이전 계획

다. 금융 산업 및 제조업 4차 산업혁명 추진

스위스, 4차 산업혁명 경쟁력 가장 우수(WEF의 GCI 지수 기준)

* 2018/19 CGI 기준 종합 4위 : 인력 수준 및 노동 시장 각 2위, 혁신 역량 3위 등

○ 평가기준 : 노동 유연성/인력 수준/혁신/인프라/법·제도

○ 스위스의 4차 산업혁명 관련 주요 지표

– 글로벌 기업 연구소 다수 소재, 고급 연구인력 집약

* AI 등 관련 : Google AI Lab, NVIDIA Deep Learning Institute, IBM Research Center

– 세계 Top 대학 : 취리히 공대(7위), 로잔 공대(12위)

* 2018 QS World University Rankings)

* 연구 논문, 인구 천 명당 3.6건, 연구자 1인당 1.1건(세계 1위)

– 2019년 EU Innovation Scoreboard(EU 주관 혁신 국가경쟁력 평가) :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와 함께 "유럽에서 가장 혁신적인 나라(Innovation leader)"로 평가

* 연구개발 제도, 인력, 기업 투자 분야 고득점

스위스의 4차 산업 추진

○ 스마트 팩토리(인더스트리 4.0)

– 현지 컨설팅 기업 Staufen Inova가 2016년 현지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82%가 스마트 공장을 도입했거나, 준비 중인 것으로 답변

* 스위스의 임금, 물가 수준은 세계 톱으로 생산성 향상에 대한 관심 지대

–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은 41%, 41%는 도입 준비 중

– 인더스트리 4.0 관련 주요 이니시어티브 : "산업 2025(Industry 2025)"

* SwissT.net(전기전자, 자동화, IT, 에너지), Electrosuisse(전자, 에너지, 정보), ASUT(통신), SwissMEM(기계, 전자, 금속) 등 4개 기관의 연합 이니시어티브

○ 핀테크 및 블록체인 기반 세계 가상화폐 산업 주도

– 스위스는 국제 금융 중심지로 핀테크 기술개발 활발히 추진

* 포춘 글로벌 500 금융기업 : UBS, Credit Suisse, Swiss Re, Zurich Insurance

* 스위스의 세계 프라이빗 뱅킹 점유율 : 26%(2013 보스톤 컨설팅)

– 2017년 세계 가상화폐 발행(ICO) 시장의 70% 차지, 2018년 들어 다소 침체한 듯 하나 증권 거래소에서 가상화폐거래의 제도화를 추진하는 등 블록체인 산업선도

* 스위스 추크 주 크립토밸리 조성, 스위스 정부 2015년부터 가상화폐를 외환으로 보고 조세 등 관련 제도 정비 → 거래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는 없고, 재산세 과세(2%)

Ⅱ. 비즈니스 환경 분석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 (정치) EU의 스위스에 대한 경제정책 전환 요구 및 대(對)EU 정책 변화 예상
- (경제) 해외수요 감소로 인한 GDP 성장률 감소 및 기업의 글로벌화 관심 증대
- (산업) 수출과 산업생산 감소로 전환
- (정책·규제) 핵발전소 단계적 폐쇄 및 재생 에너지 생산 증대

가. 정치 환경

정치지형 변화 : 진보좌파 세력 확대

- 2015년 총선에서 보수 우파 스위스 국민당(Swiss People's Party ; SVP) 승리, 1당으로 부상한 이후 EU와 대립하는 정책을 추진, EU와의 긴장관계 조성
- 2019년 10월 20일의 스위스 총선에서 진보좌파 녹색당(Green party)이 17석을 추가로 획득하여 원내 4당으로 부상함에 따라 향후 대내외정책 변화가 예상됨
  * 정당별 의석 점유현황(하원 200석) : 국민당(SVP, 우파) 53석(–12), 사민당(SP, 중도좌파) 39석(–4), 자민당(FDP, 중도우파) 29석(–4), 녹색당 28석(+17), 기민당(CVP, 중도우파) 25석(–3)
- EU는 2019년 10월을 스위스와의 포괄적 협정체결 기한으로 설정
  - 2019년 7월부터는 EU 주식 시장에서의 스위스기업 주식 매매 중지 조치
  - EU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스위스는 포괄적 협정체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
    * 스위스의 EU 국가와의 교역은 전체의 약 60%, FDI는 85% 수준임

EU 관련 기타 주요 정책

구분	내용
EU 노동자 스위스 유입 제한	• 2014년 2월 스위스 유입 EU 노동자 수를 제한하는 정책(쿼터제)이 국민 투표를 통과하였으나, 2016년 12월 스위스는 실업률이 높은 지역에 한 해 자국민에게 다소 유리하게 취업 기회를 부여하는 수준의 제도를 도입, EU와 우호적 관계 유지 * 쿼터제는 EU와 체결한 노동자의 자유로운 이동 협정에 배치 • 국민당(SVP)는 향후 동 정책의 법제화를 다시 추진할 예정
금융기관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혁	• 스위스 정부는 EU, 미국 등과 금융기관 투명성 제고를 통한 조세포탈 및 회피 방지방안 협상 중 • 2013년 수 개 EU 회원국과 원천징수세(Withholding tax) 협약을 체결하였고, 2014년 OECD의 자동정보 교환협약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agreement) 채택 • 스위스 금융기관의 비밀 관행 폐지는 스위스 금융 산업에 위기 요인으로 작용함

자료 : European Union, 스위스 경제청, 무역관 자료 조합 등, 2019년 10월 3일

나. 경제 환경

거시지표 전망, 2019년부터 성장세 약세 전환 예상

- 스위스 경제는 2018년 상반기까지 수출 증가와 스위스에 본부를 둔 국제올림픽 위원회(IOC), FIFA의 2018년 동계올림픽, 월드컵 라이센스 수입 등으로 크게 호조를 보였고, 2018년 2.5%가 성장하였음
- 그러나 독일, 프랑스, 중국 등 주요 시장의 경기침체와 스위스 프랑화 강세로 인한 수출 감소 및 설비 투자 감소로 2019년 성장은 1.6%로 둔화 예상
- 실업률은 2019년 2.3%, 2020년 2.5%로 낮은 수준이 예상되며, 소비자 물가도 전반적인 수요 감소와 낮은 국제유가로 인해 2019년 0.5%, 2020년 0.8%에 머물 것으로 예상됨
  -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IHS Markit도 GDP 성장률을 2019년 1.2%, 2020년 1.3%로 EIU에 비하여 낮게 전망

스위스 2019~2020년 주요 거시지표 전망

구분	2019년		2020년	
	EIU	IHS Markit	EIU	IHS Markit
실질 GDP 성장	1.6%	1.2%	1.7%	1.3%
민간소비	1.3%	1.1%	1.7%	1.1%
공공지출	0.8%	0.9%	1.4%	0.8%
투자	1.1%	0.3%	1.9%	1.0%
수출	0.9%	2.5%	0.7%	0.7%
수입	1.7%	2.6%	2.5%	3.4%
실업률	2.3%	2.3%	2.5%	2.4%
소비자물가상승률	0.5%	0.5%	0.8%	0.7

자료 :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 IHS Markit, 2019년 10월 3일

해외 투자 동향

- 해마다 국내외 여건 변화로 인해 기복이 있기는 하지만 글로벌 경쟁 심화, 스위스의 고비용 구조로 인해 제조업의 해외 FDI는 증가할 전망

  * 스위스의 대외 FDI 현황 : 2016년 86십억 프랑 → 2017년 마이너스 34십억 프랑
  * 2016년 말 기준 스위스의 대외 FDI 누적액은 1,245십억 프랑(세계 FDI 누적액의 약 4.3% 스위스 은행 2018년 10월 통계 기준)

다. 산업 환경

산업생산, 2017년부터 이어진 성장에서 2018년 하반기부터 감소세로 돌아서

- 수출입 동향 : 주요 수출 국가인 유럽, 프랑스, 중국 등의 수요 감소로 2018년 수출 증가율 2.3%에서 2019년은 0.9%로 증가율이 크게 감소 예상
  - 2018년 상반기까지 수출은 견고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2018년 3분기부터 감소세로 전환
  - GDP의 50% 이상을 상품·서비스 수출에 의존하는 스위스는 수출의 감소와 함께 수입도 감소하고 있으며, 경상수지 흑자는 GDP의 10.2%에서 2019년은 9.6%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수출 감소와 함께 산업생산도 2018년 하반기부터 유럽 주요 국가의 PMI 지수가 50 이하로 떨어지는 등 감소세로 전환

라. 정책·규제 환경

구분	내용
경제정책	• 스위스는 전통적으로 자유경제를 신봉, 산업 및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및 구제는 최소한에 머물고 있으며, 정부는 공공 서비스와 방위 산업 부문에만 제한적으로 참여 * 농업의 경우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으로 보호 * 농산물 생산자 소득 중 평균 62.4%이 정부보조(EU 평균 18.9%)
Energy strategy 2050 (2018년 1월) 정책	• 핵발전 신규 건설 금지, 재생 에너지 생산 확대 * 현재 스위스, 전력생산의 1/3을 핵발전에 의존(5개 핵발전소) •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4배로 늘리고, 1인당 에너지소비 43% 감축 추진 • R&D, 관련 장비, 제품 생산, 수출 등 밸류체인 전 단계에 걸친 지원책 마련 * 재생에너지 kwh당 2.3센트의 보조금 지원 * 수력발전의 경우 대형발전소 건설비용의 40%까지 지원 * 가정, 산업의 에너지 사용 효율화, 스마트 에너지 그리드 개선

2 시장 분석

- ○ 소규모 개방경제, 유럽의 중심/세계 금융 중심/고부가가치 산업 강국/소규모, 고급 소비재 시장/세계 최고의 기업경영 환경
- ○ R&D 등 기술 교류/소재·부품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진출/소비재 유럽진출 전진기지

가. 시장 특성 및 전략적 가치

시장 특성

○ 소규모 개방 시장경제, 유럽의 중심지

– EU와 120개 협약을 체결(2002년), EU의 자본, 노동, 상품 및 서비스 시장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 유럽 국가로는 드물게 중국(2014년), 일본(2009년)과 FTA를 체결하였음

–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개방경제

* 수출이 GDP의 50% 이상

* 해외직접투자 누계액

(Outbound) : 12,147억 프랑(세계 점유율 4.3%)

– 2016년 865억 프랑 → 2017년 마이너스 340억 프랑

(Inbound) 9,655억 프랑(세계 점유율 3%)

– 2016년 595억 프랑 → 2017년 384억 프랑

– 지리적으로 유럽의 중심에 위치, 독일, 불어, 이태리어 공용어로 사용

○ 세계 금융 중심지, 특히 Private banking 강세

– 세계 비거주자 외국인 자산 시장의 25% 점유(2.2조 달러)

○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고부가가치 산업 강국

– 금융, 시계, 제약 등 클러스터(인프라) 보유

– 고숙련 인력(WEF 인적 자원지수 3위) 및 유연한 고용 시장

– 자본 집약적, 고부가가치 산업 특화

– 최고 수준의 R&D 경쟁력

* 노벨상 수상자는 29명으로 인구비율 대비 세계 최고

* 스위스 과학 연구자의 57%가 외국인

○ 소규모, 고급 소비재 시장

– 인구 8백만의 소규모 시장, 1인당 GDP 8만 달러 이상

– 스위스 소비자는 까다롭고 보수적이며, 품질과 환경, 윤리경영 중시

○ 정치, 경제적 안정 유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경영 환경

– 2018년 WEF의 글로벌 국가경쟁력지수는 미국, 싱가포르, 독일에 이어 4위

• IMD 2019년 세계경쟁력지수 4위

– 직접 민주주의 및 정치적 안정, 세계 최고 수준의 경제적 평등 유지

* 안정적 경제성장, 낮은 물가 수준, 낮은 실업률, 경상수지 및 재정수지 흑자 지속

* 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국가 부패평가에서 세계 7위

– 낮은 법인세(26개 주 경쟁적으로 낮은 법인세 설정, 조세 감면)

전략적 가치

○ 스위스는 세계 Top R&D 인력 및 연구기관 보유, 정부, 연구기관, 기업 간 R&D 등 기술교류 추진을 통해 우리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에 활용 가능

– 유망분야 : 바이오, IT, 정밀기계 등 첨단기술/스마트 공장, 가상화폐 등 핀테크 분야

○ 스위스 글로벌 기업의 해외원자재 소싱 수요 공략을 통해 우리 소재·부품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진출

○ 소비재 유럽진출 전진기지로 활용

– 스위스는 서유럽의 중심이라는 입지 여건을 활용, 서유럽의 인적 자원과 물류허브 역할을 하고 있어 우리 소비재의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테스트 시장으로 활용 가능

나. 교역

스위스 상품 교역 동향(서비스 제외)

○ 2015년 1월부터 시작된 스위스 프랑화 강세로 2015년에는 수출과 수입이 하락하였으나, 2016년에는 기저 효과와 프랑화 강세 완화로 수출입 회복세 진입, 2017년에 이어 2018년까지 수출과 수입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국가별 상품 수출입 동향

– 2018년, 주요 수출국 대부분의 수출이 증가하며, 2017년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였던 프랑스 또한 5.1%로 상승하였으며, 주요 수출 대상국이었던 영국이 Brexit 여파로 크게 수출이 감소하면서 중국이 새로운 수출 대상국으로 자리매김함

스위스 주요 수출 대상 국가

(단위 : 백만 스위스 프랑, 증감률 %)

순위	국가명	2016년	2017년	2018년
-	세계	210,715(3.8)	220,424(4.7)	233,146(5.7)
1	독일	39,692(8.3)	41,156(4.0)	43,121(3.6)
2	미국	31,454(14.6)	33,692(7.0)	37,930(12.3)
3	프랑스	14,008(0.8)	13,592(-3.0)	14,734(5.1)
4	이탈리아	12,694(-0.9)	13,472(7.7)	14,106(2.5)
5	중국	9,863(10.14)	11,403(15.6)	12,178(6.8)

자료 : 스위스 관세청, 2019년 10월 4일

– 2018년에는 중국 등 모든 주요 국가에서의 수입은 증가하였으나, 미국은 2017년의 10.9% 감소에 이어 1% 소폭 감소한 반면, 프랑스는 10.1% 대폭 증가

스위스 주요 수입 대상 국가

(단위 : 스위스 백만 프랑, 증감률 %)

순위	국가명	2016년	2017년	2018년
	세계	173,202(4.1)	185,582(6.9)	201,827(8.6)
1	독일	48,552(3.3)	52,324(7.7)	54,650(4.4)
2	이탈리아	16,700(3.8)	18,021(7.3)	18,778(4.3)
3	프랑스	13,428(0.8)	14,690(9.8)	16,230(10.1)
4	미국	14,244(22.3)	12,694(-10.9)	12,560(-1.0)
5	중국	12,277(-0.6)	12,984(5.7)	14,237(9.6)

자료 : 스위스 관세청, 2019년 10월 4일

ㅇ 품목별 상품 수출입 동향(서비스 제외)

– 수출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2018년 호황을 맞이하면서 모든 주요 품목들의 수출이 5% 이상 증가함

스위스 주요 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 백만 스위스 프랑, 증감률 %)

품목	2016년	2017년	2018년
총계	210,715(3.8)	220,424(4.7)	233,146(5.7)
화학/제약	94,345(11.4)	98,504(4.5)	104,332(5.8)
기계/전자	31,059(0.0)	32,031(3.1)	33,514(4.6)
시계	19,405(-9.9)	19,924(2.7)	21,173(6.3)
측정기기	14,993(3.8)	15,645(4.3)	16,799(7.4)
금속류	12,116(2.7)	11,124(2.2)	14,398(5.5)

자료 : 스위스 관세청, 2019년 10월 4일

– 국내 경기 회복으로 주요 품목의 수입이 증가하고, 특히 주얼리는 2017년부터 급격하게 수입이 증가하면서는 40.7%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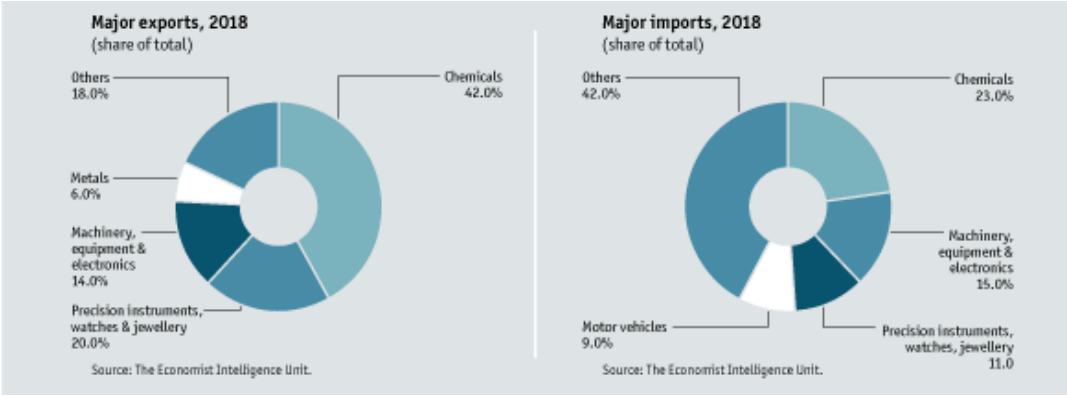
스위스 주요 품목별 수입 현황

(단위 : 백만 스위스 프랑, 증감률 %)

품목	2016년	2017년	2018년
총계	173,202(4.1)	185,582(6.9)	201,827(8.6)
의약품	43,621(12.5)	46,721(7.1)	50,148(7.3)
기계/전자	28,645(0.6)	30,474(6.4)	32,078(5.5)
승용차	19,057(12.9)	18,992(-0.5)	19,301(1.6)
주얼리	9,027(-8.0)	11,376(26.0)	16,002(40.7)
금속류	13,002(0.9)	14,477(11.4)	15,902(9.8)
직물	9,513(7.8)	10,545(10.8)	11,659(10.5)
식료품	10,127(2.9)	10,581(4.4)	10,856(2.5)

자료 : 스위스 관세청, 2019년 10월 4일

스위스 수출입 품목 비중



자료 :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19년 10월 3일

수입규제, 비관세 장벽 등 진입장벽

○ 진입장벽

– 한국과 스위스를 포함한 EFTA와의 FTA가 2006년에 발효되어 공산품 등 대부분 품목에 무관세가 적용됨

* EFTA 회원국 :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 수입규제 및 비관세 장벽의 정도는 높지 않고, EU 진출이 가능한 수준이면, 스위스 시장 진입에 큰 애로사항 없는 것으로 파악됨

* 일부 산업별 인증과 소비재 관련 언어 라벨링 등은 고려 필요

수출 성공/실패 사례 및 시사점

수출 성공 사례 : 화학 소재 K사(스위스 합성소재 글로벌 제조기업에 수출)

- 화학소재 제조기업 K사, 유럽 최대 글로벌 기업 E 사에 장기 공급 가능
- K사는 원 소재를 개발, 수출하여 한국 소재 기업이 스위스의 핵심 수출 산업인 화학 산업에 대한 소재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모범적인 사례
- 제품의 비교우위 : 동 화학 소재의 수출은 타 경쟁국 대비, 대량 공급이 가능한 설비 투자, 관련 인증의 신속한 획득 그리고 적정 가격 제시로 대응한 점이 장점으로 작용함
- 마케팅 Tool

필수 인증	ISO 9001, ISO 14001
성약 소요 기간	2년/1년 차(소재 개발, 테스트, 물량, 가격 협의), 2년 차(설비 투자 및 납품 실시)
바이어 발굴경로	☐ Telemarketing ☐ 전시회 ☐ Sales Rep. ☐ PR agent ■ 기타(바이어 직접 접촉)
바이어 D/B	google, 관련 전시 사이트, 관련 협회 회원 사이트, Kompass
유망 전시회	ILMAC (스위스 바젤, 격년) * 화학, 제약, 바이오, 특수화학 등 분야의 소재 전문 전시회

- 시사점 : 스위스는 화학 산업이 고도로 발달, 특히 합성 소재는 자동차,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선박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사용되고 있으며, 바이어의 생산 주력 품목에 대한 정확한 이해, 이를 통한 한국에서 개발이 가능한 품목을 선정하여, 수출함으로써 상호보완적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시장점유 확대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공적인 사례임

수출 실패 사례 : 미용의료기기 X사(바이어 요청에 소극적 대응으로 독점계약 해지)

- 무역사절단 참가, 스위스 방문을 계기로 바이어와 파트너십 시작, 3년간 독점계약 체결
- 불량품에 대한 무상배송 및 무상 A/S 조건이었으나, 적기 대응하지 못함
  - 바이어가 제품 수리를 위한 부품을 국내기업에 요청하였으나, 국내기업이 대응 지연
  - 바이어는 중국산 부품을 자체 조달하여 AS를 실시함
  - 바이어는 업무 연락 애로, 대응 지연 등 A/S 지원에 대한 불만을 사유로 독점계약을 해지함
- 시사점 : 바이어 요청에 대응이 어렵거나, 시간이 걸리는 사안이라도 바이어에게 진행 사항이나, 대응계획에 대한 간단한 회신을 하는 등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중요하며, 국내기업은 현지기업에 비하여 A/S의 신속성과 접근성이 떨어지므로 현지법인 등이 없을 경우, 관련 업무 지원에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음

다. 투자진출

외국인 투자 동향

○ 스위스에 대한 외국인 투자(FDI) 유입은 2013년 경제위기를 맞아 5억 프랑으로 급격한 감소를 기록한 이후, 유럽 경제 회복과 함께 2015년 769억 프랑으로 매우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나, 2017년에는 383억 프랑으로 진정되는 추세이며, 투자 누계치(capital stock)는 2015년 8,427억 스위스 프랑에서 2017년 1조884억 스위스 프랑으로 증가

스위스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capital inflows/capital stock)

(단위 : 백만 스위스 프랑)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Capital Inflow(투자유입액)	76,937	59,516	38,352
Capital Stock(투자누계치)	842,794	1,061,331	1,088,433

자료 : 스위스 중앙은행(SNB, 2019년 9월 기준 최신 통계), 2019년 10월 4일

- 2017년 말 누계 기준으로 스위스에 가장 많이 투자한 국가는 네덜란드(28.6%), 룩셈부르크(21.7%), 미국(12.7%), 영국(4.3%), 오스트리아(4.4%) 순이며, 네덜란드, 룩셈부르크로 투자가 많은 것은 이들 국가는 금융 중심지로 유럽 및 기타 제3국의 기업이 동 국가를 통해 간접 투자하였기 때문임

스위스 10대 투자국(누계-/capital stock)

(단위 : 백만 스위스 프랑, %)

순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비중)
-	세계	842,794	1,061,331	1,088,433
1	네덜란드	215,140	327,712	311,132(28.59%)
2	룩셈부르크	198,047	235,181	236,325(21.71%)
3	미국	90,675	134,738	138,340(12.71%)
4	영국	41,413	53,296	46,539(4.28%)
5	오스트리아	60,627	42,520	42,150(3.87%)
6	프랑스	40,003	37,856	39,482(3.63%)
7	독일	24,625	25,559	27,486(2.53%)

자료 : 스위스 중앙은행(SNB, 2019년 9월 기준 최신 통계), 2019년 10월 4일

- 외국인의 스위스 제조업 투자는 590억 스위스 프랑으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이는 화학/플라스틱산에 대한 대규모 투자에 따른 것임

- 한편 서비스업 직접 투자는 -210억 스위스 프랑으로 외국인의 투자 철회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해외기업의 스위스 재무/지주기업에 대한 투자 활동 감소, 자회사 해산 등이 주요 원인이라 함

업종별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capital inflows)

(단위 : 백만 스위스 프랑)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제조업	12,141	4,186	59,317
- 화학 및 합성수지	6,382	848	53,503
- 금속 및 기계	743	162	1,376
- 전기, 전자, 시계, 에너지	4,844	2,455	1,924
- 기타 산업 및 건설	171	722	2,514
서비스업	64,797	55,330	-20,965
- 무역	10,973	11,341	1,807

- 금융 및 지주회사	39,825	39,559	-30,199
- 은행	-2,639	-1,260	-769
- 보험	57	1,143	3,238
- 운송 및 커뮤니케이션	-537	1,932	-620
- 기타 서비스업	17,117	2,614	5,577
합계	76,937	59,516	38,352

자료 : 스위스 중앙은행(SNB, 2018년 10월 기준 최신 통계), 2019년 10월 4일

투자진출 진입장벽

○ 스위스는 외국기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제도적 진입장벽은 없는 편임

– 다만, 스위스는 비EU국 노동자에 대하여 비자 쿼터제를 운영하고 있어 고용 창출이 제한적인 소규모 투자의 경우 스위스에 직접 투자하더라도 한국인 인력 파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 노동허가 문제로 인해 스위스에 법인 등을 설립한 후 한국에서 인력을 파견하지 못하거나, 파견자 수가 크게 제약을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인건비·물가 : 일반 사무직 등의 경우에도 월급이 최소 600만 원 이상을 책정해야 하므로 인건비 부담이 높으며, 물가는 독일에 비해 2배 이상으로 운영비 및 주재원 생활비 등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됨

* UBS 발표 물가지수(2018년) : 취리히 116.8, 서울 88.3

우리기업 투자진출 성공/실패 사례 및 시사점

○ 스위스는 인구가 작고, 고부가가치 제조업, 금융 산업 강국으로 우리기업의 시장 추구, 생산 및 비용절감형 투자와는 적합지 않으며, 따라서 대기업의 현지 판매법인, R&D 투자, 개인 비지니스 형태의 투자가 주류를 이루었음

투자진출 성공 사례 : 중공업 분야 현지 R&D 센터 설립

· A사는 '발전용 고효율 대형가스터빈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Global 가스 발전 시장이 요구하는 line-up product 개발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이러한 대규모 개발 진행을 위해 경험 있는 우수한 해외 인력을 채용하고, R&D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2017년 하반기에 대형 가스터빈 R&D 센터를 스위스에 설립함

· **시사점** : 스위스는 취리히 연방 공대, 로잔 연방 공대 등의 세계 일류의 공대가 위치해 연구인력 채용에 유리한 면을 가지고 있으며, ABB, Holcim 등 대기업에서 프로젝트로 경험을 쌓은 우수한 인재들이 많아, 연구개발센터 운영에 적합하며, 스위스의 강점 중 하나인 우수한 인력 풀을 활용하여 기업 역량을 강화한 모범적인 사례임

투자진출 실패 사례

최근 5년간 특기할 만한 국내기업 투자실패 사례는 없음

○ 스위스가 블록체인 기술을 중심으로 한 가상화폐 산업의 중심지로 부상함에 따라, 우리기업들도 스위스에서의 ICO 추진에 관심을 나타내기 시작하고 있으며, 그 외 일부 기업은 산업용 모듈 개발 등 R&D를 목적으로 현지 법인을 설립하였음

3 한국과의 경제 교류 및 주요 경협 의제

가. 교역

한-EFTA FTA 체결

○ EFTA(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와 우리나라의 FTA는 2006년 9월 발효

– 이후 모든 공산물, 가공 농산물 및 수산물에 대한 관세 폐지

한-스위스 수출입 동향

○ 2018년 우리의 스위스 수출은 497백만 달러로 전년 대비 1.8% 증가하였고, 수입은 3,037백만 달러로 전년 대비 11.1% 증가, 2019년 8월 기준 수출은 전년 대비 20.9% 증가, 수입은 3.9% 감소하였음

한-스위스 수출입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1~8월)
수출(증감률)	558(-62.4)	488(-12.5)	497(1.8)	384(20.9)
수입(증감률)	2,350(-4.2.)	2,735(16.4)	3,037(11.1)	1,983(-3.9)
무역수지	-1,793	-2,247	-2540	-1599

* 괄호는 전년 대비 변화율, 2019년의 경우 전년 동 분기 대비

자료 : 한국무역협회, 2019년 10월 4일

○ 품목별 수출 동향

– 수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던 승용차의 수출이 2018년부터 크게 감소하고 있고, 2018년 의약품 수출은 502%가 증가하며, 승용차 수출이 감소한 반면, 전기자동차의 수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스위스 주요 수출품목

(단위 : 백만 달러)

순위	품목명	2017년		2018년		2019년(1~8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1	의약품	54	-64.9	29	-47.3	84	502
2	승용차	157	34.6	118	-24.7	56	-32.7
3	기타 플라스틱제품	25	68.5	34	36.2	27	24.5
4	전기자동차	9	114.9	20	128.2	25	194
5	시계	26	-2.1	47	79.1	23	-21.0
6	금	20	87.4	27	34.3	20	73.1
7	백금	0	-100	5	0	14	971.5
합계		487	-12.5	497	1.8	384	20.9

* MTI 4단위 기준, 수출품목 순위는 2019년 수출액을 기준 내림차순, 증감률은 전년 동기 대비 %

자료 : 한국무역협회, 2019년 10월 4일

○ 품목별 수입 동향

– 수입 1위 품목 시계의 2018년 수입은 전년 대비 44.3%가 증가하고, 2019년에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커피 수입도 매년 지속적으로 큰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2019년 8월 현재 전년 동기 대비 44.6%가 증가하였으며, 2019년 8월까지의 스위스에서의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3.9%가 감소하였고, 이는 우리의 수입의 전반적인 감소와 함께 2017년, 2018년 스위스에서의 수입이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기저효과로 보임

우리나라의 스위스 주요 수입품목

(단위 : 백만 달러)

순위	품목명	2017년		2018년		2019년(1~8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1	시계	523	12.5	755	44.3	529	2.2
2	의약품	399	21.2	498	25.1	362	2.8
3	금	266	136.3	249	-6.3	135	-25.9
4	펌프	109	18	95	-12.7	68	19.1
5	주얼리	80	29.2	78	-2.1	67	18.5
6	의료용기기	91	19	94	3.1	66	6.5
7	커피류	36	41.4	42	15.9	40	44.6
합계		2,735	16.4	3,037	11.1	1,983	-3.9

* MTI 4단위 기준, 수출품목 순위는 2019년 수출액을 기준 내림차순, 증감률은 전년 동기 대비 %
자료 : 한국무역협회, 2019년 10월 4일

수출성공 및 실패 사례 : "Ⅱ. 2. 시장 분석 – 나. 수출입" 참조

나. 투자

우리기업의 스위스 투자 동향

○ 우리기업의 스위스 투자 진출은 미미한 편으로 2019년 1분기 누계 기준 투자금액은 205건(71개 법인), 6억6천만 달러이며, 2014년까지 연간 투자 신고 건수는 10건 내외였으나,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26건, 12건으로 증가, 이는 스위스가 주요 가상화폐 ICO 국가로 부상하였고, 우리기업의 부품 개발 R&D 투자 수요가 증가한 데 따른 것임

○ 최대 투자 분야는 도소매업, 제조업, 금융 및 보험 분야임

– 스위스 진출 주요 우리기업은 삼성전자, LG전자 등 판매법인이며, 최근 발전기 부품과 전력기기 R&D를 위한 투자가 이루어진 바 있으며, 가상화폐 ICO를 위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도 있음

우리나라의 대(對)스위스 투자 동향

(단위 : 천 달러)

업종 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제조업	40	15	317,060	41	292,876
도매 및 소매업	70	25	251,705	87	222,135
금융 및 보험업	11	3	151,202	13	72,85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0	9	29,466	20	29,46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10	3	39,735	7	39,550
부동산업	7	1	3,182	7	3,202
정보통신업	26	7	3,355	24	3,247
숙박 및 음식점업	4	3	871	5	650
운수업 및 창고업	7	2	305	3	315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	1	227	1	22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	1	180	2	180
건설업	4	2	137	4	137
농업, 임업 및 어업	1	0	445	0	0
합계	205	71	798,171	215	665,140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2019년 10월 4일

우리기업 투자진출 관련 시사점

- 스위스는 취리히 연방 공대, 로잔 공대 등의 세계 일류 공대가 위치하고 있고, 전통적으로 R&D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어, 생산시설 투자보다는 R&D 등 투자가 유력 * 구글 등 글로벌 기업, 스위스에서 R&D 진행

투자진출 성공 및 실패 사례 : "II. 2. 시장 분석 – 다. 투자진출" 참조

다. 주요 경제협력 의제

(정상 회담) FTA 확대 및 산업 협력 확대 추진

- 최근 회담: 2016년 7월 한–스 청와대 정상회담, 2018년 3월 한–스 정책협의회 등
- 주요 안건
  - 한–EFTA FTA의 업그레이드 필요성 상호 공감
  - 신약, 의료기기 개발 및 기술 사업화를 위해 보건·의료 R&D 분야 전문 인력의 연수·교류와 국내 제약·의료기기 업체의 스위스 진출 확대 논의
    * 동 협의를 계기로 2018년 2월 '한–스 생명과학 이니셔티브 위원회' 발족, 동 위원회는 민관협의체로 향후 2년간 보건의료 협력 아젠다 발굴,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 스타트업 컨설팅 등의 기능을 수행
  - 양국의 제약업계, 학교·연구소·병원 간 전략적 제휴 강화 협의
  - 민간 기술협력 및 투자를 연계 지원, 관련 분야 학자 간 교류 촉진 논의

– 5G 등 이동통신, 주파수 관리, 브로드밴드, 정보 보호,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오픈데이터 등의 분야에서 정보 교환, 인력교류, 공동 세미나 개최, 공동연구 사업 장려, 창업기업 상호지원 및 공동 기술화 추진 협의

– 직업교육훈련 분야 협력 확대 협의

각 국의 비교우위를 활용한 상호 투자유치·진출 확대

○ (스위스의 대한(對韓) 수요) 글로벌 기업의 R&D·HQ 요충지로서 국내 기업의 R&D 센터 유치에 관심

* 두산 중공업 등 일부 기업은 2017년에 기 현지 R&D 센터 설립

○ (한국의 대(對)스위스 수요) 아시아 및 미국을 타깃으로 한 생산 거점으로서 스위스 글로벌 기업의 생산거점 및 아시아 본부 유치에 관심

Ⅲ. 진출전략

- (SO) 화학·제약, 기계, 전자 산업 협력 추진
- (ST) 한-스위스 제조기업 글로벌 협력 강화
- (WO) R&D, 기술협력 등 고부가가치 분야 중점 협력
- (WT) 스위스 소비재 시장을 거점 시장으로 활용

1 SWOT 분석 및 전략도출

<스위스 시장 SWOT 분석>

S 강 점 (Strength)

- 유럽의 중심 : 유럽 등 글로벌 시장 진출 거점 역할
  - 지리, 산업·시장, 언어·문화, 개방경제
- 스위스의 원천기술/R&D 역량과 우리의 생산 역량 기반 협력관계 구축
- 화학, 기계, 전자 등 주력 산업 기반 보유

W 약 점 (Weakness)

- 스위스-고부가가치, 한국-저부가가치로 교역관계 불균형 ⇒ 한국의 만성적 무역 역조
- 유럽 시장 의존도가 높은 현지 산업 구조
- 높은 임금 등 고비용, 고물가
- 작은 고급 소비 시장

O 기 회 (Opportunity)

- 스위스 제조기업의 생산 글로벌화, 해외 협력 강화
- 스위스 프랑화 강세 완화, 세계 시장 회복 등 수출 여건 개선으로 스위스 제조업 회복세
- 스위스 인더스트리 4.0, 블록체인, 핀테크 등 강력한 4차 산업화 추진

T 위 협 (Threat)

- 스위스화 강세, 고임금, 고물가 심화로 제조업 해외 진출 확산 및 공동화 우려
- Swissness 도입에 따른 원산지 규제 강화
- 중국 등 제3국과의 경쟁 심화

전략방향	세부전략	진출전략
SO 전략 (역량 확대)	• 화학, 기계, 전자 등에서의 양국 간 보완관계 활용 (R&D 역량 ↔ 생산역량) • 유럽 및 글로벌 시장 공동 진출	화학, 기계, 전자 산업 협력 추진
ST 전략 (강점 활용)	• 현지기업의 글로벌화를 활용(3국 공동 진출) • Swinssness 시행에 대한 대응	한-스위스기업 글로벌 협력 강화
WO 전략 (기회 포착)	• R&D, 기술협력을 통한 스위스의 고비용 구조 회피 및 국내 산업 고부가가치화 추진 • 금융, 제조업 기반 4차 산업 협력	R&D, 기술협력 등 고부가가치 분야 중점 협력
WT 전략 (위협 대응)	• 소규모, 고급 소비재 스위스 시장을 테스트, 거점 시장으로 활용	현지 소비재 시장을 거점으로 활용

2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2020년 진출전략

스위스 시장 트렌드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임금 상승 등 고비용 구조 심화로 스위스 제조업 해외 협력 확대 ·생산의 글로벌화에 따른 글로벌 경쟁 심화	○ 스위스기업은 경쟁력 위기 극복을 위하여 해외 소싱 등 글로벌 협력 추진 → 소싱, 전략적 제휴 등 협력 기회 확대 * 해외 부품·소재 소싱 확대 등 스위스 제조기업의 글로벌 협력 강화에 대한 적극 대응 * 스위스 히든 챔피언과의 투자, 전략적 제휴 등 협력 추진
·글로벌 경기 회복 및 스위스 프랑화 강세 완화로 제조업 수출 확대	* (기대효과) 우리기업의 생산역량+스위스기업의 글로벌 Top R&D 역량 → 우리 제조업 생산성 및 부가가치 제고 ○ 중점 타깃 산업 : 화학·제약, 정밀기계, 전자 산업 등

Greater value, Globalization and Hidden Champion	한-스위스 협력 확대를 통한 우리 산업 고부가가치, 글로벌화 및 히든 챔피언 육성

2-1. 스위스 제조업 부품·소재 소싱 확대 등 글로벌 협력 추진에 대응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스위스 제조업은 생산의 글로벌화를 적극 추진하여 왔으며, 최근 프랑화 강세, 글로벌 경쟁 심화 등으로 해외 생산 시설 이전 및 소싱 확대 추진

* 스위스 대외투자 : 2016년 말 현재 대외 FDI 누적액은 1조2천억 프랑(세계 점유율 4.3%)

* 스위스 ABB 등 기계·전자·금속관련 기업의 해외 고용인원 : 50만 명(국내 33만 명)

○ 스위스의 우리나라에 대한 FDI 투자기업은 206개(서비스업 137개, 제조업 69개)임

* 서비스업 투자 기업 137개의 약 2/3는 스위스 제조업 제품의 마케팅, 세일즈 사무소 설립 투자

스위스 글로벌 대기업 등 해외 소싱 확대 수요 대응 필요

○ 스위스 제조기업의 해외 협력에 대한 관심 증가

– 스위스 프랑화 강세(2015년 1월 ~), 글로벌 경쟁 심화로 스위스기업의 주요 마켓별 현지 생산에 대한 관심 증대

○ 스위스기업 절반, 3년 내 생산설비 해외이전 검토 중

– Swiss Manufacturing Survey(2017년)에 따르면, 설문대상 중 46%가 3년 내 생산설비를 해외로 이전할 계획이라 함(동유럽, 중국, 서유럽 지역 우선 검토)

– 높은 인건비, 높은 환율 변동성 등이 주요 원인이며, 이전 시 고려할 사항은 시장 접근성, 현지 기술력, 물류 등 인프라 비용, 저렴한 에너지 공급 여부 등 비용 절감 관련 요소임

* 요소별 중요도 : 생산비 절감(6.27), 시장 접근성(4.4), 물류비 절감(4.06), 시장 개척(4.05), 인재 확보(3.68), 법·정치 환경(3.22) 등 [1(최저)–7(최고) 평가(106개사)]

– 스위스는 고등기술 요구 부품 제조, 제품 혁신 등 핵심역량의 거점으로 포지셔닝

○ 주요 타깃 분야

– (화학) 스위스 최대 산업으로 제약업 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

* 2018년 스위스 상품 수출의 약 45%를 차지

* 노바티스(Norvatis, 2018년 매출 532억 달러), 로슈(Roche, 2018년 매출 565억 달러), 론자(Lonza) 등 세계 제1, 2위의 신약 제조기업, 특수화학 제품 제조기업 등 보유

– (금속·기계·전자) 스위스 GDP의 17%(2017년)를 차지하고 있으며, 32만 명이 근무하는 중요 산업 분야, 화학 산업과 더불어 스위스 최대 제조업 분야임

* 생산의 약 80%를 해외 수출, 2018년 스위스 수출의 약 40%(금속 6%, 기계·전자 14%, 정밀기기, 시계, 보석 20%) 차지

* 유럽으로 생산의 약 60%가 수출되고 있어 유럽의 경기에 큰 영향을 받음

○ (접근 방향) 스위스기업의 글로벌 생산거점 확대에 따른 제3국 중간재 수요 확대 및 공급선 다변화 트렌드를 공략

* 예)스위스 1차 벤더 A사, 유럽·미국 완성차의 남미 생산거점 납품을 위한 부품 구매

– 본사가 총괄하지 않고, 해외거점에 소싱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음으로 타깃 기업의 소싱 프로세스 조사가 중요함

– 국내기업 역시 동유럽 등으로 생산거점을 다변화하여 로컬 소싱 수요에 직접 대응하는 등의 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소싱 기업 선정 기준 등 : 가격 경쟁력과 품질, 불량률과 생산여력을 고려한 납품 안정성을 종합 검토, 타깃 시장에 해외공장을 둔 경우 매우 유리함

2-2. 스위스 히든 챔피언과의 협력 확대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스위스는 선진국 가운데 제조업이 경제에서의 비중이 큰 국가임(1인당 기계 수출액 세계 2위)

* 세계 톱 클래스의 혁신적 산업 클러스터 보유 : 항공, 방위/제약, 바이오/의료기기/정밀기계/시계/반도체/마이크로, 나노/산업장비(직물, 로봇, 인쇄 등)

○ 스위스의 히든 챔피언,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유지

- R&D 중심의 혁신 추구 : 1인당 GDP 8만 불 이상의 고비용 국가임에도 기업과 R&D 기관, 정부의 끊임없는 혁신과정을 통해 제조업 경쟁력 유지

* 기업 및 R&D 기관 : 혁신 투자, 협력(세계 7위의 R&D 투자국)

* 정부 : 세계 최고 기업 환경 조성(WEF 평가, 세계 1위 기업 운영 환경 국가)

레드오션을 피해 틈새시장을 주도하는 히든 챔피언

○ 스위스에는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는 중소기업, 즉 히든 챔피언이 다양한 분야에서 존재하며, 히든 챔피언은 틈새시장(niche)에서 매우 특화된 전문성을 갖춤

* 예시 : Tornos(특수 CNC 선반), Komax(와이어 프로세싱) 등

* 과거 시계 부품기업였던 정밀기계 분야로 전환하는 등 오랜 기간 노하우 축적한 점도 영향

○ 기술 경쟁력, 산학 협력을 통한 기술의 상용화가 활발한 점도 스위스 히든 챔피언의 경쟁력 유지의 원천임

– 현지 주요 공대 : 취리히 공대(ETH, 세계 대학 7위), 로잔 공대(EPFL, 세계 대학 22위)

* https://www.topuniversities.com/university-rankings/world-university-rankings/2019

– 스핀오프 기업 사례 : Logitec(컴퓨터 주변기기 및 전자제품, 매출 약 25억 USD), Sensirion(센서 등 전자 부품, 약 매출 1.5억 USD) 등

○ (접근방향) 국내 및 아시아 시장을 타깃으로 한 전략적 제휴

– 스위스의 니시(niche) 제품기업과 시너지가 기대되는 한국의 제조기업과의 제휴(전략적 투자, JV 등)

* 최근 사례 : 스위스 화장품 및 생활용품 생산 화학기업 A사, 국내에서 제품 생산하고 있고, 유통망을 보유한 B사 주식의 과반수를 인수, B사의 사업을 확대하여 이를 플랫폼으로 활용, A사의 제품의 국내 진출 추진 중

3 한-스위스 경제협력을 통한 진출전략

2020년 진출전략

분야	경제협력을 통한 진출전략
기업·기관과의 혁신 R&D 협력 강화	○ 스위스기업과 연구기관의 높은 기술력과 한국의 우수 생산기술을 기반으로 한 상호 보완적 협력 필요 ○ 기업 대(對)기업, 기업 대(對)기관 등 양국 간 기술협력 확대, 글로벌 기업의 corporate venture, 전략투자, JV 등 활용 ○ 신기술의 상호 교류를 통한 효율적인 기업 역량 강화 (R&D의 아웃소싱化)
블록체인 및 스타트업 : 블록체인 중심으로 현지진출을 스타트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블록체인 분야 글로벌 허브로써 스위스 : 산업 생태계 및 good practice 벤치마크 및 글로벌 발판으로 현지진출 확대 * 스위스 : 글로벌 블록체인 기반 가상화폐 ICO 중심지이자 관련 핵심 산업 클러스터 기 구축(Zug 칸톤의 Crytovalley가 중심) * 금융감독기관 및 은행협회 가이드라인 등 선도적 규제 환경 조성 중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변화	글로벌 경쟁 심화, 4차 산업 확산 등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변화 적응 위한 협력

3-1. 기업·기관과의 혁신 R&D 협력 강화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양국 정상 간 회담을 통해 R&D 분야의 포괄적 협력 확대에 대한 상호 관심 표명

* KIAT(한국산업기술진흥원), Innosuisse(기술혁신공사) 간 공동 R&D 촉진을 위한 MOU 기 체결

* 이외 상기 "II. 3. 다. 주요 경제협력 의제"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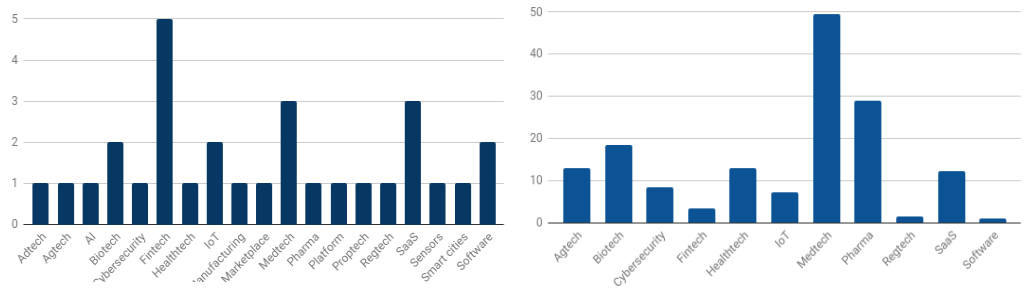
○ CVC(corporate venture capital)를 통해 외부에서 혁신기술 수혈

– 스위스 CV 투자규모는 2017년 기준 약 1.6억 스위스 프랑으로 추산되며, series A와 B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남

– Novartis, Nestle 등 대기업은 CV를 외부수혈을 통한 R&D 역량 강화 및 글로벌 시장 확대가 주목적으로 해외에 활발히 투자하는 반면, Swisscom, Post Finance 등은 내수 서비스 강화가 주목적임

– me-too 제품과 확연히 차별되는 혁신성이 요구되며, 초기 스타트업도 관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기업 인수 또는 과반수 지분 투자 형태의 전략적 투자가 일반적이며, 필요시 JV 형태도 취하고 있음

스위스 CV의 분야별 투자 횟수 및 규모



투자 횟수(Deal Count 회) 투자금액(백만 스위스 프랑)

자료 : boudkov.com, 2019년 10월 4일

※ 혁신기술 발굴 및 선진기술 노하우 교류 추진 사례

– 스위스 제약사 B사, 국내 임상실험 적극 추진 및 유망 한국 중소 제약개발사 발굴 추진

– 한국 대기업 A사, 현지 플랜트 분야 노하우 흡수를 위해 현지 R&D 법인 설립

* 상기 "2. 다. 투자진출 우리기업 투자진출 성공사례" 참고

진출전략 및 시사점

○ 양국 기관과의 공동 연구개발·개발 협력 추진

– 양국 정부 R&D 펀드, EU 펀드를 활용한 기업 간 협력 형태의 공동 개발
  * 국내 예시) 해외수요처연계 기술개발사업 R&D 자금지원(www.smtech.go.kr)
  * 현지 예시) Innosuisse international innovation project(www.innosuisse.ch)
– 스위스 우수 대학·연구기관을 통한 기술 개발 또는 미상용화 된 신기술 인수
  * 주요 대학, 기업 대상 미상용화 된 신기술 발표회 정기 개최 : ETH Industry Day (www.ethz.ch/industry-day), EPFL Industry day(http://sti.epfl.ch/page-124709-en.html) 등

○ 글로벌 기업의 혁신 아웃소싱 트렌드에 대응코자 할 경우, 주요 기업의 CVC와의 협력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으며, 단, 일부 CV는 지역적 제약을 두고 있어(예 : 유럽만 투자, 한국 등 아시아는 제외) 관심 있는 우리기업은 스위스 및 유럽으로의 투자진출을 우선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스타트업의 해외진출과 관련, 다음 항목에 기재된 "스위스 주요 엑셀러레이터 목록"을 참고 바람

스위스 주요 기업 벤처(corporate venture)

기업명	개요
ABB Technology Ventures	• 엔지니어링 ABB사의 CVC, 주요 투자 분야는 robotics, industrial IoT, machine learning, 3D printing, cybersecurity and distributed energy 등이며, 회사당 약 50만에서 최대 1천만 달러까지 투자 가능
Nestle Health Science	• Nestle의 헬스케어 관련 Venture Capital이며, 자금 운용사인 Inventages가 운용 추정
Novartis Venture Fund	• 글로벌 제약 기업 Novartis의 헬스케어 관련 Corporate Venture Capital로 투자 운용금액은 약 8억 불 규모이며, 바이오 분야 혁신기술 발굴이 주목적임 * 투자 사례 : 파맵신(대전바이오벤처타운 입주기업, 항암항체 치료제 개발) 40억 원, 네오믹스(탈모치료제 개발) 1백만 달러, 큐로사이언스(QuroScience, 현재 이름 큐리언트 Qurient) 1백만 달러 등
Roche Venture Fund	• 글로벌 제약 기업 Roche의 Venture Fund로 치료제의 경우 전임상, 진단기술 개발사의 경우 상용화 12~18개월 이전에 투자를 하며, 투자규모는 3백만~1천만 달러이며, 15%의 경영권 이전이 보통임
Swisscom Ventures	• 스위스 국영통신사 Swisscom 의 CVC로 ICT 관련 기업에 투자, 전 세계에 투자하는 International Fund와 스위스 내에 투자하는 Swiss Early Stage Fund로 나뉘며, 현재까지 해외 투자는 미국, 이스라엘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으며, 라운드 당 투자금액은 0.5백만에서 1백만 달러 사이며, 최대 5백만 달러까지 투자 가능
Syngenta Ventures	• 스위스 농업 기업 Syngenta의 CVC로 2006년부터 현재까지 1억 달러 이상 투자 이력, 지리적 제한은 없으나, 현재까지는 북미농업 관련 스타트업에만 투자

자료 : 각 기업 홈페이지

3-2. 현지진출을 통한 블록체인 스타트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2017년 스위스, 블록체인 기반 세계 가상화폐 발행(ICO) 시장의 70% 차지, 2018년 들어 싱가포르 등의 부상으로 성장세가 주춤하고 있으나, 현재 스위스 증권거래소에 가상화폐 거래 시장 개설은 검토하는 등 산업을 선도하고 있음
  * 스위스 추크 주 크립토 밸리에 세계 각국에서 다수의 블록체인 기업 집중, 클러스터 형성
  * 스위스 정부 2015년부터 가상화폐를 외환 취급, 세금 제도 정비

○ 2019년 상반기 기준, 스위스의 ICO 규모는 17.8억 달러로 세계 4위, 블록체인 관련 기업 규모는 약 800여 개사, 이 중 500대 기업의 기업 가치는 400억 달러로 추산

○ 스위스 연방, 주 정부는 스위스를 글로벌 가상화폐 시장 중심으로 육성 추진

– 2018년부터 시작되는 스위스의 외국인 금융정보 공개 등으로 스위스 금융 산업 경쟁력 비교우위 타격 우려, 핀테크 등 산업 적극 육성

○ 정부·기관의 산업 친화적 환경 조성 노력 진행 중

– 금융감독기관 : ICO 가이드라인 제시, 기업의 사업모델부터 ICO까지 프로세스에 대한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환경 조성

– 은행협회 : 블록체인 기업 대상 업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실물 화폐(fiat)와 가상화폐(crypto) 간 간극 해소 노력, 블록체인 기업의 최대 애로사항 중 하나인 거래 가능한 금융기관 확보가 수월해지도록 환경 조성 중

진출전략 및 시사점

○ 지방 정부 간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 우리기업의 스위스에서의 ICO(Initial Coin Offer) 지원 시스템 구축

* 서울시, 부산시, 제주도 등 블록체인 클러스터 육성 관련 스위스와의 협력 기 추진 중

○ 현지 엑셀러레이터 적극 활용, 글로벌 펀딩 및 기술 개발을 둔 현지진출 확대

스위스 주요 엑셀러레이터 목록

기업명	특징
Kickstart Accelerator	• 유럽 최대 비지분 투자 엑셀러레이터 중 하나로, 다수의 기업이 해당 프로그램을 후원하고 있으며, 스위스뿐만 아니라 글로벌 스타트업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피칭 대회를 개최해 30여 개 기업을 선발함 • 각 2만 5,000 스위스 프랑(약 3,000만 원)까지의 자금 지원을 비롯해 11주 동안 현지 주요 기업 관계자를 통한 멘토링(체류 기간 동안 기본 생활비 지원), 스위스 전략적 파트너 발굴 등을 지원하고 있음 * 분야 : fintech, food, robotics&smart systems, smart cities, healthcare, edtech * 지분공여 없음 * 국내 블록체인 기업 블록코(Blocko) 2017년 프로그램 최종 선발 * https://kickstart-accelerator.com/
F10 Incubator and Accelerator	• 취리히에 위치한 스타트업 인큐베이터/엑셀러레이터로 스위스 거래소(SIX)의 후원을 받아 핀테크/보험 기술 스타트업/레그테크(RegTech-내부통제/법규 관련 기술) 기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 연 2회 진행하며, 전략적 조언뿐 아니라 스폰서들과 스타트업 간 전략적 제휴도 지원 * 분야 : fintech, insurtech and regtech * http://www.f10.ch/
Fintech Fusion	• 제네바에 위치한 12개월 acceleration 프로그램으로 매년 전 세계에서 10개의 핀테크 기업을 선발했으며, 선발된 10개 기업은 각각 Fintech Fusion의 멘토 1명과 짝을 이루어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 * 분야 : fintech/life Science/proptech(건축&도시계획) * 지분 공여 없음 * https://fintechfusion.ch/

Nexussquared/ Nexuslab	• 3개월간의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블록체인 기술 개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3주간 유럽 핀테크 현장 방문, 멘토링 등을 지원 * 분야 : 블록체인 * http://www.nexussquared.co/services/nexuslab/
Thomson Reuters Labs -The Incubator	•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체 톰슨로이터에서 제공하는 6~12개월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참가자에게는 사무 공간, 멘토, 톰슨로이터 시스템 엑세스, 기술 지원 등이 이루어짐 * 분야 : fintech, regtech, legaltech * 지분공여 없음 * https://innovation.thomsonreuters.com/en/labs/incubator.html

자료 : 각 기업 홈페이지, fintechnews.ch 등

○ 한국의 벤처캐피털 A사에 따르면, 스위스 스타트업 기업은 바이오·엔지니어링 등 기술과 하드웨어가 발달되어 있으며, 반면, 한국 스타트업 기업은 애플리케이션 化 등 서비스 중심으로 발달되어 있어 잠재적으로 상호보완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현지기업과 상호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4 진출 시 유의사항

강제인증	수입규제 품목
■ **(현황)** - 스위스는 일반적으로 제품 규격에 관한 법적 제한이 없으나, 국가 안전에 관련해서는 강제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하고, 국제규격을 준수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대응전략)** ☞ 사전에 품목별 인증내역 확인, 유럽 시장을 진출한 적이 없고 바로 스위스진출을 원하는 업체는 컨설팅 기관들을 통해 인증 획득	■ **(현황)** - 스위스는 농산물의 경우 식품안전을 목적으로 수입제한을 하고 있으며 농산물 수입은 주로 관세할당제로 통제하고 있음. 일부 품목은 수입이 제한되고 있으며 일부 잡곡류, 야채/과일류, 육류, 유제품, 계란류, 와인 등의 품목에 관세 할당제(Tariff Quota)가 적용되고 있음 ■ **(대응전략)** ☞ 스위스 수입제한 품목을 확인 필요

라벨링	해커에 따른 송금 사기
■ **(현황)** - 품목 마다 라벨링에 대한 규정이 다름 ■ **(대응전략)** ☞ 품목의 라벨링 규정을 미리 확인해야 하고, 식품의 경우 자국 공식 언어(독일,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중 하나로 라벨링 하는 것을 의무화 하고 있으며, 또한 유제품이나 견과류 같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제품들은 라벨링에 굵은 글씨로 표시해야 함	■ **(현황)** - 기업 A는 현지 대기업에 수출 후 대금을 받지 못하여 문의하였으나, 현지 기업은 이미 송금을 하였다고 답변받음 - 이메일로 컨택하는 과정에서 인보이스 전송 시기에 해커가 거래처 사칭, 위조 인보이스 전송 ■ **(대응전략)** ☞ 현지기업은 대기업이라 할지라도 대금 결제 시 까다롭게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전화로 확인을 하거나 위조할 수 없는 서명을 이용하고 이를 바이어에게 명시

첨부 1 수출유망품목(상품)

품목명	HS Code	3304	수입관세율(%)	0%
화장품	수입액('18/US$백만)	458	대한수입액('18/US$백만)	3.0
	선정사유	• 한국産의 인지도 및 수요 점진적 증가 추세		
	시장동향	• 한국산 화장품을 취급하는 온/오프라인 숍의 증가 - K-Pop은 본격 확산되지 않았으나, 점진적으로 인지도가 증가 중 - 총 수입(백만USD) : 2016년 405 → 2017년 417 → 2018년 458 - 한국産 수입(백만USD) : 2016년 1.3 → 2017년 3.4 → 2018년 3.0		
	경쟁동향	• 2018년 기준 주요 수입대상국(백만(USD) - 독일 134.45, 프랑스 122.19, 미국 38.99, 영국 38.41		
	진출방안	• 스위스 수출에 반드시 필요한 CPNP 인증을 받아 진출 준비를 해야 하며, 이 인증은 서류가 방대하고, 절차가 까다로워 최소 6개월에서 1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함 • 현지 유럽파트너 발굴을 통한 대형유통망 입점 및 유럽 시장에 맞는 선별된 제품에 집중하여야 하며, 아직 한국 화장품은 마니아 층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인지도를 상승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임		
품목명	HS Code	870899	수입관세율(%)	0%
CKD 부품, 기타 자동차용 전자부품	수입액('18/US$백만)	318.1	대한수입액('18/US$백만)	7.5
	선정사유	• 한국산 제품의 수출 지속 증가		
	시장동향	• 스위스의 'CKD부품 기타 자동차용 전자 부품' 제품 시장규모는 2015년 프랑화 강세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7년부터 다시 성장함 - 총 수입(백만USD) : 2016년 294.5 → 2017년 304.1 → 2018년 318.1 • 한국으로부터의 소싱은 확대 추세(백만 USD) - 2016년 5.1 → 2017년 6.4 → 2018년 7.5		
	경쟁동향	• 2018년 기준 주요 수입대상국(백만(USD) - 독일 113.6, 이태리 57.9, 프랑스 16.3,		
	진출방안	• 스위스 내 완성차 업체는 없음으로 자동차부품 분야의 1차 벤더/조립업체를 타깃으로 선정 • 지역 특성상 자동차 생산국인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에서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어서 인근 자동차 생산 국가로의 조립 후 수출이 가능함		
품목명	HS Code	850131	수입관세율(%)	0%
전기모터(출력이 750와트이하인 것)	수입액('18/US$백만)	100.3	대한수입액('18/US$백만)	4.0
	선정사유	· 재생에너지 확대로 수요 증가		
	시장동향	• 스위스의 핵발전소 단계적 폐쇄,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전기모터에 대한 문의 증가 - 총 수입(백만USD) : 2016년 70 → 2017년 84 → 2018년 100.3 - 한국産 수입(백만USD) : 2016년 38 → 2017년 2.5 → 2018년 4.0		
	경쟁동향	• 주요 수입대상국은 독일(2018년 점유율 34.14%), 중국(17.76%), 일본(11.55%)임		
	진출방안	• 주요 수요처 - 전력플랜트(A/S 포함), 엔지니어링 및 건축 - 모터생산업체 : 기존 생산제품 대체 및 비생산 제품 제3국 공급 등		

		- 전력 서비스업체(Distributor, Provider): 전력 공급업체의 장치를 위한 구매 - 솔루션 및 엔지니어링 업체 : 오토메이션, 드라이브·콘트롤 분야 컨설팅 업체 등에서 관련 시스템 설치 및 가동을 위해 구매		
품목명	HS Code	1902301010	수입관세율(%)	100kg당 CHF70.25
반도체	수입액('18/US$백만)	367	대한수입액('18/US$백만)	6.3
	선정사유	• 한국産 수입의 지속적인 증가		
	시장동향	• 2015년 스위스 프랑의 강세로 인해, 스위스의 많은 제조사들이 어려움을 겪었으며, 그 여파로 반도체 시장 또한 주춤한데도 불구하고, 한국 수출액은 증가하고 있으며, 제조업이 회복하고 있으며, 독일과 중국의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음 - 총 수입(백만USD) : 2016년 378 → 2017년 359 → 2018년 367 - 한국産 수입(백만USD) : 2016년 4.2 → 2017년 5.7 → 2018년 6.3		
	경쟁동향	• 주요 수출 국가는 독일(2018년 점유율 22.6%)과 중국(19.79%)이며, 독일의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 중국 또한 지속적으로 감사하다가 2018년 0.8%p 증가함		
	진출방안	• 주요 진출방안 : 반도체 유통망 및 CSEM 같은 대기업의 공급업체로 진출을 고려		
품목명	HS Code	9503	수입관세율(%)	0%
완구	수입액('18/US$백만)	407	대한수입액('18/US$백만)	1.3
	선정사유	• 수입 의존성이 높으며, 한국産 수입 증가		
	시장동향	• 전체 시장 수입규모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크리스마스 등 하반기에 매출이 집중되는 산업임 - 총 수입(백만USD) : 2016년 405 → 2017년 420 → 2018년 407 - 한국産 수입(백만USD) : 2016년 1.3 → 2017년 1.0 → 2018년 1.3		
	경쟁동향	• 주요 수출 국가는 중국(2018년 점유율 49.93%)과 독일(21.44%) 임		
	진출방안	• 스위스의 소비재 유통망은 Migros와 Coop이 지배하고 있음으로, 이 두 대형 유통망을 통한 시장 진출이 가장 효과적임 • Franz Carl Weber Toy Store와 같은 장난감 전문 가게를 통해 진출하거나, toys.ch와 같은 장난감 전문 온라인 혹은 Galaxus와 같은 대형 온라인 마켓에 진입하는 방법도 있음		

* 각 수출통계는 GTA(Global Trade Atlas) 기준, 2019년 10월 7일

첨부 2 수출유망품목(서비스)

품목명	내용	
블록체인 기술	선정사유	• 스위스 금융계, 은행 비밀주의 포기 이후 금융 분야 신성장 동력으로 블록체인 및 핀테크에 관심 증가 • 글로벌 블록체인 중심지(Cryptovalley)로 부상, ICO 관련 제도 정비 등 생태계 조성 중
	시장동향	• 블록체인을 활용한 token/crypto-화폐와 ICO(Initial Coin Offering)의 글로벌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Zug 市에 Crypt Valley 구축, 관련 기업 및 인력이 풍부한 생태계 조성 중
	경쟁동향	• Ethereum, Monetas, XAPO 등 기업들이 기 진출 • 전 세계 ICO 중 약 30%가 스위스를 통해 진행
	진출방안	• 블록체인 : 현지 VC 행사(Kickstart Accelerator 등)를 활용, Zug 등 혁신 지역에 스타트업 진출, Swisscom Blockchain 등 대기업과 기술협력 등 • ICO : Ethereum 등을 벤치마킹하여 현지에 비영리 재단 또는 법인을 설립하여 Crowdsale 진행
비디오게임	선정사유	• 글로벌 게임 및 관련 콘텐츠 산업(스트리밍 등) 확대 트렌드가 스위스로 확산 • 현지 게임 인구가 3백만 명(총인구의 약 1/3)을 초과하는 등 관련 소비 시장 형성
	시장동향	• 스위스게임개발자협회(Swiss Game Developers Association)에 따르면, 산업 규모는 5천만 CHF 수준 • swisscom, 2018년 10월 스위스 최초로 e스포츠 방송(ESL tv, ES1) 및 자체 e스포츠 리그 “Swisscom Hero League” 발족
	경쟁동향	• 콘솔 게임 시장점유율은 Playstation4(41.8%), Switch(29.2%), Xbox one(13.2%), Nintendo 3DS(4.8%) 순임
	진출방안	• 스위스의 비디오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가상현실을 위한 제품 개발 등을 통하여 스위스 시장 진출 등 스위스 게임 개발(OZWE Games나 GIANTS Software)과 협력 고려 가능 • 현지 게임 컨벤션 활용 : Zurich Game Show(취리히), Ludicious(취리히), HeroFest(베른) 등

첨부 3 2020년도 KOTRA 주요 사업(잠정)

2020년 제네바 기능성 식품소재 박람회(비타푸드/Vitafood) 한국관 운영

- 일시/장소 : 2010년 5월 12일(화)~14일(목)/제네바 PALEXPO 전시장
- 내용 : 현지 우수 글로벌 전시회 한국관 참가·운영
  - 전시회 개요 : 유럽 내 기능성 식품 관련 최대 규모이며, 바이어와 업체 중심의 전문박람회
- 2020년 참가 규모(잠정) : 16 부스(2002년 이후 19회째 참가)
- 특이사항 : 유럽 지역 협업 사업으로 추진(인근국 상담 바이어 유치)

첨부 4 2020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주요 정치 일정

건명	일시(잠정)	비고
국민투표	2.9 / 5.17 / 9.27 / *11.29	연 4회 실시

주요 경제·통상 일정

건명	일시(잠정)	비고
세제 개혁	2020. 1월 부	세금 관련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반적 법 내용 변경 예고 - R&D 비용에 대한 세금 감면 계산 변경 - 국제표준과 불일치하는 세금혜택 폐지
2021년 예산발표	2020. 8월 중	2020년 예산은 2019년 8월 공개

유망 전시회 캘린더

산업	품목	전시회명	일자/장소
경제 포럼	-	2020 다보스 세계경제포럼 (The World Economic Forum)	2020.1.21 ~ 24/다보스
산업기기	정밀기기, 산업기기, 머신툴	프로덱스(Prodex 2021)*	2021.5.18 ~ 21/바젤
신소재·산업기기/광학/패션·섬유/전기·전자	정밀기기, 의료기기, 시계, 시계소재, 기계 부품, 소프트웨어 등	EPHJ - EPMT - SMT	2020.6.16 ~ 19/제네바
소비재	시계, 귀금속, 패션 잡화 등	2020 스위스 바젤 시계 보석 전시회 (Baselworld 2020)	2020.4.30 ~ 5.5/바젤
식품	식품	2020 스위스 제네바 비타푸드 (Vitafoods Europe 2020)	2020.5.12 ~ 14/제네바
예술	예술 작품	2020 스위스 바젤 미술 전시회 (Art Basel 2020)	2020.6.18 ~ 21/바젤

*객년마다 전시회 개최

부록 對스위스 K패키지(양국 간 상생협력방안)

Ⅰ. 한-스위스 상생협력 필요성과 미래비전

가. 스위스의 협력 잠재력과 주요국 협력 현황

스위스의 협력 잠재력

○ **소규모 개방 시장경제, 유럽의 중심지 → 유럽 시장 진출의 교두보**

- EU와 120개 협약을 체결(2002년), EU의 자본, 노동, 상품 및 서비스 시장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함
-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개방경제
  * 수출이 GDP의 50% 이상
  * 해외직접투자 누계액
    (Outbound) : 12,147억 프랑(한국 3,000억 달러), 세계 점유율 4.3%
    2016년 865억 프랑 → 2017년 마이너스 340억 프랑
    (Inbound) 9,655억 프랑(한국 1,850억 달러) 세계 점유율 3%
    2016년 595억 프랑 → 2017년 384억 프랑
- 유럽의 중심에 위치, 독일, 불어, 이태리어 공용어로 사용

○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고부가가치 산업 강국 → 제조업 중심의 우리 산업과의 협력 잠재력 커**

- 기계·전자·금속, 화학·제약, 정밀측정기기 등 클러스터(인프라) 보유
  * 스위스는 선진국 가운데 제조업이 경제에서의 비중이 가장 큰 국가(1인당 기계 수출액 세계 2위)
  * 세계 톱 클래스의 혁신적 산업 클러스터 보유 : 항공, 방위/제약, 바이오/의료기기/정밀기계/시계/반도체/마이크로, 나노/산업장비(직물, 로봇, 인쇄 등)
- 고숙련 인력(WEF 인적 자원지수 3위) 및 탄력적인 고용 시장
- 자본 집약적, 고부가가치 산업 특화
- 세계 최고 수준의 R&D 경쟁력

○ **소규모, 고급 소비재 시장 → 유럽의 소비재 시장 진출의 테스트 마켓 역할 가능**

- 인구 8백만의 소규모 시장, 1인당 GDP 8만 달러 이상
- 소비자는 까다롭고 보수적이며, 품질과 환경, 윤리경영 중시

○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경영 환경 → 유럽 시장 진출 거점 역할**

- 2018년 WEF의 글로벌 국가경쟁력지수는 미국, 싱가포르, 독일에 이어 4위
  * IMD 2019년 세계경쟁력지수 4위

– 직접 민주주의 및 정치적 안정, 세계 최고 수준의 경제적 평등 유지

* 안정적 성장, 낮은 물가 수준, 낮은 실업률, 경상수지 및 재정수지 흑자 지속
* 시장에 의한 소득 배분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평등도 유지
* 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국가 부패평가에서 세계 7위

– 낮은 법인세(26개 주 경쟁적으로 낮은 법인세 설정, 조세 감면)

스위스의 주요국 협력 현황

○ 스위스의 대외협력의 기본원칙 : 정치적으로는 중립, 경제적으로는 대외개방, 협력을 통한 국익 추구

– 정치적 중립 – 중립국 전통

* 국민투표 통해 EU 미가입 결정(1992년) 및 190번째 회원국으로 UN 가입(2002년 가입 당시 로마 바티칸 이외 UN에 가입하지 않았던 마지막 국가)

– 경제적 협력 : 수출입과 투자, EU 의존도 높아

* 1972년 EEC와 FTA 체결, 1993년 EU가 결성되면서 스위스는 EU와 20개의 조약, 100여 개의 협정을 체결하여 EU와 자본, 노동, 상품 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교환이 가능한 준회원국 지위 확보
* EFTA(1960년) 가입 *회원국 :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 한국(2006년), 중국(2014년), 일본(2009년)과 FTA 체결

– R&D 국제협력 : Horizon 2020 참여

* Horizon 2020은 유럽연합 사상 최대의 연구/혁신 프로그램으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7년간 약 800억 유로를 제공하는 펀딩이며, 이를 통해 많은 민간 투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 각 프로젝트는 2백5십만 유로의 연구자금을 지원받으며, 기금을 통해 수많은 아이디어가 많은 세계 최초기술 개발, 각종 돌파구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음
* 2019년 승인된 총 222개의 프로젝트 중 신경과학, 천문학, 제약, 도시계획 등 18개의 프로젝트가 스위스 국적의 프로젝트임

○ 수출입 및 투자

– 상품 수출입

(단위 : US$백만)

국가	수출(비중%)			수입(비중%)		
	2016	2017	2018	2016	2017	2018
EU	113,008(54)	116,842(53)	121,352(52)	124,538(72)	132,636(76)	141,805(82)
- 독일	39,692(19)	41,156(19)	43,121(18)	48,604(28)	52,328(30)	54,650(31)
- 프랑스	14,008(7)	13,592(6)	14,734(6)	13,385(8)	14,738(8)	16,230(9)
- 이태리	12,504(6)	13,762(6)	14,106(6)	16,795(10)	18,006(10)	18,778(11)
- 영국	11,432(5)	11,384(5)	8,781(4)	6,395(4)	6,087(4)	7,746(4)
- 네덜란드	4,949(2)	5,126(2)	7,765(3)	4,927(3)	5,040(3)	5,381(3)
- 기타	41,855(20)	43,206(20)	41,626(18)	40,827(24)	42,524(25)	46,766(27)
비EU 국가	97,707(46)	103,582(47)	111,794(48)	49,004(28)	53,138(31)	60,022(35)
- 미국	31,477(15)	33,768(16)	37,930(18)	14,245(8)	12,692(7)	12563(7)

- 중국	9,863(5)	11,403(5)	12,178(6)	12,284(7)	12,995(7)	14237(8)
- 일본	7,273(3)	7,326(3)	7,642(4)	3,116(2)	3,593(2)	3,394(2)
- 홍콩	4,852(2)	5,345(3)	5,944(3)	1,132(1)	1,193(1)	1,198(1)
- 싱가포르	3,410(2)	4,250(2)	4,374(2)	1,737(1)	1,946(1)	2,533(1)
- 한국	2,786(1)	3,062(1)	3,198(2)	807(0)	710(0)	757(0)
합계	210,715	220,424	233,146	173,542	185,774	201,827

자료 : 스위스 경제청, 2019년 10월 7일

- 수출입 합계액은 GDP의 63%(2018년)
- EU에 대한 수출입 의존도
  * 수출 52%, 수입 82%
- 한국과의 수출입 비중
  * 수출 2%, 수입 0.4%
- 해외직접투자

(단위 : US$백만)

국가	해외직접투자(Inbound)(비중 %)			해외직접투자(Outbound)(비중 %)		
	2015	2016	2017	2015	2016	2017
EU	664,572 (78.34)	831,428 (78.34)	824,696 (75.77)	543,514 (48.91)	654,752 (52.40)	626,250 (51.01)
-네덜란드	215,140 (25.53)	327,712 (30.88)	311,132 (28.59)	107,286 (9.65)	130,842 (10.47)	141,413 (11.52)
- 룩셈부르크	198,047 (23.5)	235,181 (22.16)	236,325 (21.71)	153,839 (13.84)	178,902 (14.32)	171,361 (13.96)
- 영국	41,413 (4.91)	53,296 (5.02)	46,539 (4.28)	48,998 (4.41)	57,684 (4.62)	54,158 (4.41)
- 오스트리아	60,627 (7.19)	42,520 (4.01)	42,150 (3.87)	7,785 (0.7)	8,738 (0.7)	9,797 (0.8)
- 프랑스	40,003 (4.75)	37,856 (3.57)	39,482 (3.63)	47,503	50,990	52,081
- 독일	24,625 (2.92)	25,559 (2.41)	27,486 (2.53)	37,322 (3.36)	40,680 (3.26)	49,490 (4.03)
- 기타	84,717 (10.05)	109,305 (10.30)	121,581 (11.17)	175,296 (15.77)	228,238 (18.77)	190,593 (15.52)
비EU 국가	178,222 (21.15)	229,903 (21.66)	263,737 (24.23)	533,235 (47.98)	553,525 (44.30)	558,915 (45.52)
- 미국	90,675 (10.76)	134,917 (12.71)	136,179 (12.51)	196,583 (17.69)	239,531 (19.17)	253,151 (20.62)
- 일본	5,649 (0.67)	5,758 (0.54)	4,209 (0.39)	9,273 (0.83)	10,671 (0.85)	10,583 (0.86)
- 한국*	413 (0.05)	508 (0.05)	572 (0.05)	4,323 (0.39)	3,366 (0.27)	3,839 (0.31)
합계	842,794	1,061,331	1,088,433	1,111,268	1,249,603	1,227,811

자료 : 스위스 중앙은행(SNB, 2019년 10월 기준 최신 통계)

– EU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의존도(2017년)

* 누계 기준 FDI(Inbound) 75.77%, FDI(Outbound) 51.01%

– 한국과의 해외직접투자 비중(2017년)

* 누계 기준 FDI(Inbound) 0.05%, FDI(Outbound) 0.31%

* 누계 기준 Inbound는 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 통계 대(對)스위스 투자금액 누계치에서 역산

나. 한-스위스 상생협력 미래비전 도출

한-스위스 상생협력 미래비전

스위스의 협력 잠재력	스위스의 전략 산업
- 소규모 개방 시장경제, 유럽의 중심지 - 고부가가치 제조업 강국 - 소규모, 고급 소비재 시장 - 정치·경제적 안정 및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경영 환경	- 전통적 전략 산업 : ① 제약·화학 ② 기계/전자 ③ 측정 정밀기기 ④ 금속 - 신산업 : ① ICT ② 에너지 ③ 의료·바이오·식량 ④ 블록체인 ⑤ 스마트도시/스마트홈

스위스 산업 트렌드	한-스위스 협력내용
- 임금 상승, 프랑화 절상 등에 따른 글로벌 경쟁력 약화 - 생산과 소비의 글로벌화와 함께 스위스 글로벌 기업의 해외 협력수요 확대	- 스위스기업은 글로벌 협력 강화 → 부품·소재 소싱, 직접투자 등 전략적 제휴 * 협력 산업 : 화학·제약, 정밀 측정기기, 기계·전자, 금속 산업 * (기대효과) "우리기업의 생산역량+스위스기업의 글로벌 Top R&D 역량" → 우리 제조업 생산성 및 부가가치 제고
- 스위스 인더스트리 4.0, 블록체인, 핀테크 등 강력한 4차 산업화 추진	- 한-스위스 R&D 및 기술협력 강화 * 기업 대(對)기업, 기업 대(對)기관 등 기술협력 확대, 글로벌 기업의 corporate venture, 전략투자, JV 등

한-스위스 협력 분야	[G2G] FTA 강화 및 산업 협력 확대 [B2B] 1 주력 전략 산업 협력 2 신산업 및 R&D·기술협력 [B2G] 스위스 소재 국제기구 조달 시장 진출

한-스위스 상생협력 목표	- 글로벌 경쟁 심화, 4차 산업혁명 확산 등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변화 적응력 - 한-스위스 협력을 통한 산업 고부가가치 및 글로벌화

스위스의 전략 산업

○ 경제 및 산업 구조

– 스위스는 소규모 개방경제로 원자재와 소비재를 수입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제품을 생산, 수출하는 경제구조가 특징

– GDP 구성 : GDP에서의 제조업 비중은 25.5%임

구분	GDP(%)
1차 산업(농업/임업/수산업/광업)	0.79%
2차 산업	25.65%
- 제조	18.75%
- 건설	5.28%
- 전력업/수력공급/폐기물 관리업	1.61%
3차 산업	7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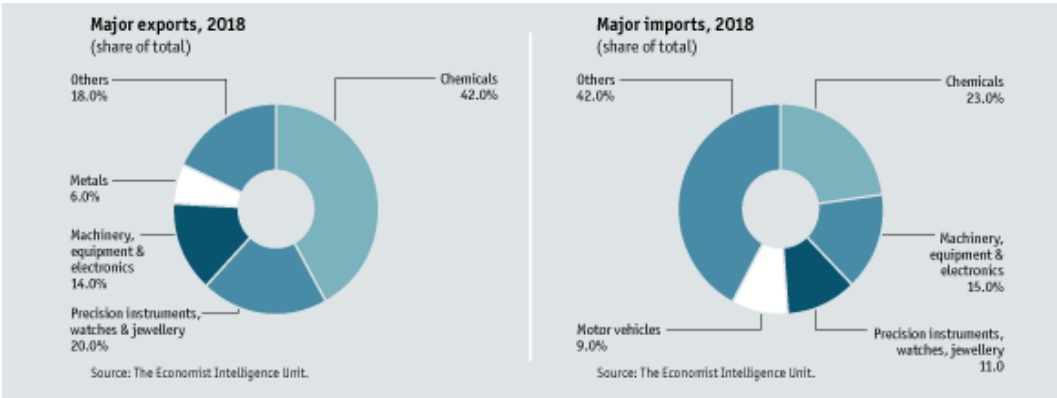
자료 : 연방 통계청, 2019년 10월 7일

– (주력 전략 산업) 화학·제약, 기계·전자, 측정 정밀기기, 금속 산업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 보유, 이들 산업이 수출의 82%와 수입의 49% 차지

* 제조업 Fortune Global 500 기업 : Nestle(식품 66위), Roche(제약 167위), Norvartis(제약 175위), ABB(기계 286위)

* 분야별 히든 챔피언 : Rolex, Swatch(시계), Sonova, Synthes(의료장비), Schindler(기계), Syngenta(농업)

산업별 수출입 비중



자료 :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19년 10월 7일

– (신산업) 경쟁력 보유 기술, 신산업(Niche 및 Star 산업)

① ICT(머신런닝·신경망/빅데이터/포토닉스)

② 에너지(지열/태양광/미래에너지 저장/분산에너지시스템)

③ 의료·바이오·식량(현장 진단/줄기세포/대안단백질소스/지속가능한 식량생산)

④ 블록체인

⑤ 스마트도시/스마트홈

* 스위스 교육연구혁신부(SERI : Swiss State Secretariat for Education, Research and Innovation)와 SATW의 전문가 70인, 향후 3~5년간 스위스에 경제에 중요한 37개의 기술을 선정, 4개 그룹으로 구분

– 선정 기준 : 경제적 중요도/경쟁력

스위스의 유망 신기술 평가분류

스위스의 경쟁력 (10 / 0)		
	[Niche] - 머신 런닝/신경망 - 지열 발전 - 현장 진단 (Point-of-care diagnostics) - 줄기세포 대량 배양 - 블록체인 - 미래 에너지 저장 - 대안 단백질 소스 - 분산 에너지 시스템	[Star] - 태양광 발전 - 스마트 도시 - 지속가능한 식량생산 - 빅 데이터 분석 - 스마트 홈 - 드론 - 포토닉스
	[Hopeful] - 증강 현실 - 협동 로봇 - 정밀농업 드론 - 기타	[Self-runner] - Connected machine - 스마트 그리드 - 기능성 섬유 - E-mobility : 전기자동차와 인프라

스위스에 대한 경제적 중요도 (0 ~ 10)

자료 : SATW(Swiss Academy of Engineering Sciences) : www.satw.ch/en/early-identification/technologies

스위스 산업 트렌드 및 한-스위스 협력내용

○ 스위스의 경쟁력 있는 전통적 전략 산업과 신산업의 높은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수출입과 FDI, 기술교류는 부진한 실정임

한국과 스위스의 산업 및 협력 구조

한국	스위스
- 경쟁우위 분야 : 제조업 - 제조업 강점 : 범용제품 대량생산, 가격 경쟁력 - 주력 산업 : 운송기기(선박, 자동차, 자동차부품), 무선통신기기, 일반 기계, 석유 및 석유화학, 철강제품, 섬유류, 반도체·가전(컴퓨터, 디스플레이 포함) * 수출의 76.3% * 소재·부품·장비 산업 2001년 이후 생산 3배, 수출 5배 성장(수출의 56.4%)	- 경쟁력 우위 분야 : 제조업 + 서비스(금융 등) - 제조업 강점 : 우수한 R&D, 기술경쟁력을 기반으로 소량 다품종,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 주력 산업 : 화학·제약/기계·전자/측정 정밀기기/금속 * 수출의 82%

한-스위스 협력구조		
(한국 → 스위스) 대량생산을 기반으로 한 소재·부품이 수출의 50% 이상	수출입	(스위스 → 한국) 의약품, 시계, 식품 등을 제외하면, 60% 이상이 한국의 산업에서 사용하는 고기술을 요구하는 고부가가치의 장비, 핵심소재 및 부품을 수출
(한국 → 스위스) 스위스의 산업 및 R&D 기반을 활용하기 위한 투자 증가(블록체인, 바이오, 부품개발 R&D)	투자 / 기술협력	(스위스 → 한국) 한국기업과의 거래관계를 기반으로 시장 형 투자

○ 한-스위스 경제협력 현황

- 수출입 : 2018년 우리나라의 수출은 497백만 달러, 수입은 3,037백만 달러로 큰 폭의 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스위스에 대한 수출의 전체 수출에서의 비중도 0.08%에 불과

우리나라의 스위스 주요 수출품목

(단위 : 천 달러, %)

순위	품목명(MTI 3단위 기준)	2018년	증감률
1	자동차	139,380	-16.6
2	패션잡화	68,199	61.8
3	플라스틱 제품	34,792	34.8
4	금은 및 백금	32,988	46.2
5	농약 및 의약품	28,600	-47.2
6	반도체	13,658	123.9
7	정밀화학 원료	11,404	-36.0
8	고무제품	11,375	14.6
9	기타 화학공업 제품	10,320	66.7
10	공구	9,915	42.7
11	전자응용기기	8,568	-9.3
12	염료 및 안료	8,522	24.9
13	원동기 및 펌프	6,384	74.9
14	금속공작기계	5,563	37.4
15	합성수지	5,413	-5.2
	기타	101,451	
합계		496,532	1.8

자료 : 한국무역협회, 2019년 10월 7일

우리나라의 주요 수입품목

(단위 : 천 달러, %)

순위	품목명(MTI 3단위 기준)	2018년	증감률
1	패션잡화(시계 등)	834,113	38.1
2	농약 및 의약품	548,146	18.3
3	금은 및 백금	254,839	-4.9
4	금속공작기계	119,324	-9.5
5	계측제어분석기	117,269	-5.0
6	원동기 및 펌프	114,563	-0.8
7	기계요소	114,439	-12.4
8	의료용기기	96,132	3.5
9	산업용 전기기기	64,043	85.8
10	섬유 및 화학기계	61,332	27.3
11	기호식품	50,641	15.2
12	기타 기계류	40,048	15.1
13	정밀화학 원료	38,205	11.2
14	전자응용기기	35,052	16.5
15	반도체 제조용 장비	33,928	-14.3
	기타	515,381	
합계		3,037,455	11.1

자료 : 한국무역협회, 2019년 10월 7일

- FDI 협력 : 2019년 2분기까지의 스위스의 대한 직접투자 누계액은 30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FDI 유입 누계액의 0.89% 차지

스위스의 대한(對韓) 투자 동향

(단위 : USD 백만)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분기	전체누계
신고건수	19	39	35	29	21	832
신고금액	195	74.8	226	106.7	95.2	3,012

스위스의 대한(對韓) 산업별 투자 동향

(단위 : USD 천)

KSIC분류	신고건수	신고금액
전체	832	3,012,247
제조업	310	1,708,773
식품	31	367,501
화공	56	276,276
의약	15	65,233
금속·금속가공제품	24	30,601
기계장비·의료정밀	104	522,957
전기·전자	36	261,060
운송용 기계	18	105,304
서비스업	503	1,216,300
도·소매(유통)	320	553,298
정보통신	46	135,206
금융·보험	24	347,052
연구개발·전문·과학기술	48	101,217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2019년 10월 7일

– 기술협력 : 스위스의 높은 R&D 역량,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신산업 분야 기술협력은 초기 단계에 있으나, 점차 확대 중

ㅇ 글로벌 트렌드 변화에 따른 한–스위스 협력 확대

– 글로벌 경쟁 심화 및 생산과 소비의 글로벌화와 함께 스위스 글로벌 기업의 해외 협력수요 확대

– (교역) 스위스기업의 원자재 소싱 수요 확대 → 이를 활용한 우리 소재·부품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진출

– (투자유치) 스위스 노동비용 등 생산비용 상승 → 시장 확보, 생산비 절감 목적의 해외생산 투자 확대

– (기술/R&D) 글로벌 R&D 및 기술협력 확대 → 전통 산업 및 미래먹거리 신산업 분야 협력 강화

* 정부, 연구기관, 기업 간 공동 R&D 등 기술교류 추진을 통해 우리산업의 고부가가치화, 경쟁력 제고

* 우리기업의 스위스 투자 진출은 2017년 이후 투자 건수 크게 증가하며, 이는 앞서가는 스위스의 가상화폐 등 블록체인 산업과 기계 산업 등에서의 우수한 R&D 기반을 활용하기 위한 부품개발 R&D 투자에 따른 것임

* 스위스는 취리히 연방 공대, 로잔 공대 등의 세계 일류 공대를 보유하고 있고, 유럽의 R&D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어 생산시설 투자보다는 R&D 목적의 투자가 유력

Ⅱ. 주체별 상생협력 과제와 실행방안

가. [G2G] 정부 간 교역·투자 및 기술협력 환경 개선 추진

1 FTA 강화 및 산업 협력 확대

추진배경

○ 2016년 7월 한–스 청와대 정상회담, 2018년 3월 한–스 정책협의회 등 협의

* 2018년 2월 '한–스 생명과학 이니셔티브 위원회' 발족 : 민관협의체, 2년간 양국 보건의료 협력 아젠다 발굴,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 스타트업 컨설팅 등의 기능을 수행

* 한–EFTA FTA의 업그레이드 필요성 상호 공감

협력 프로그램

○ 한–EFTA FTA의 업그레이드 검토 및 추진

○ 산업 및 기술협력 확대

– 신약, 의료기기 개발 및 기술 사업화를 위해 보건·의료 R&D 분야 전문 인력의 연수·교류 확대

– 양국의 제약업계, 학교·연구소·병원 간 전략적 제휴 강화

– 5G 등 이동통신,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오픈데이터 등의 분야에서 정보 교환, 인력교류, 공동 세미나 개최, 공동연구 사업 장려, 창업기업 상호지원 및 공동 기술화 추진

* 양국 정상 간 회담을 통해 R&D 분야의 포괄적 협력 확대에 대한 상호 관심 표명 KIAT(한국산업기술진흥원), Innosuisse(기술혁신공사) 간 공동 R&D 촉진을 위한 MOU 기 체결

○ 직업교육훈련 협력 확대

나. [B2B] 주력 전략 산업 및 신산업에서의 기업 협력 촉진

1 주력 전략 산업

스위스 제조업 부품·소재 아웃소싱 및 해외생산 확대 등 협력수요에 대응

○ 추진배경 : 스위스 제조기업의 해외 협력에 대한 관심 증가

– 스위스 프랑화 강세(2015년 1월 ~), 글로벌 경쟁 심화 → 부품·소재 해외 소싱 및 주요 마켓별 현지 생산 관심 증가

* 스위스기업 절반, 3년 내 생산설비 해외이전 검토 중

* Swiss Manufacturing Survey(2017)에 따르면, 설문대상 중 46%가 3년 내 생산설비를 해외로 이전할 계획임을 밝혀(동유럽, 중국, 서유럽 지역 우선 검토)

(투자 지역 선정 시 고려요소별 중요도) 생산비 절감(6.27), 시장 접근성(4.4), 물류비 절감(4.06), 시장 개척(4.05), 인재 확보(3.68), 법·정치 환경(3.22) 등

[1(최저)–7(최고) 평가(106개사)]

* 스위스 대외투자 : 2016년 말 현재 대외 FDI 누적액은 1조2천억 프랑(세계 점유율 4.3%), 스위스의 우리나라에 대한 FDI 투자기업은 206개(제조업 69개)

– 스위스는 고급기술 부품 제조, 제품 혁신 등 핵심역량 거점으로 포지셔닝

○ 주요 타깃 분야

– (화학) 스위스 최대 산업으로 제약업 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

* 2018년 스위스 상품 수출의 약 45% 차지

* 노바티스(Norvatis, 2018년 매출 532억 달러), 로슈(Roche, 2018년 매출 565억 달러), 론자(Lonza) 등 세계 제1, 2위의 신약 제조기업, 특수화학 제품 제조기업 등 소재

– (금속·기계·전자) 스위스 GDP의 17%(2017년)를 차지하고 있으며, 32만 명을 고용하고 있는 산업, 화학 산업과 더불어 스위스 최대 제조업 분야

* 생산의 약 80%를 해외 수출, 2018년 스위스 수출의 약 40%(금속 6%, 기계·전자 14%, 정밀기기, 시계, 보석 20%) 차지

* 유럽으로 생산의 약 60%가 수출되어 유럽의 경기에 큰 영향을 받음

* ABB 등 기계·전자·금속관련 기업의 해외 고용인원 : 50만 명(국내 33만 명)

○ (협력 방향) 스위스기업의 공급선 다변화 및 글로벌 생산거점 확대에 따른 제3국 중간재 수요 확대 트렌드를 공략

스위스 히든 챔피언과의 협력 확대

○ 추진배경

– 스위스에는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는 중소기업, 히든 챔피언이 다양한 분야에서 존재하며, 히든 챔피언은 틈새시장(niche)에서 매우 특화된 전문성을 갖추고 있음

* 스위스의 히든 챔피언,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유지

* 예시) Tornos(특수 CNC 선반), Komax(와이어 프로세싱) 등

– 스위스의 우수한 교육, R&D 기관과 기업의 활발한 산학 협력도 히든 챔피언 육성에 공헌

* 현지 주요 공대 : 취리히 공대(ETH, 세계 대학 7위), 로잔 공대(EPFL, 세계 대학 22위) (www.topuniversities.com/university-rankings/world-university-rankings/2019)

* 세계 7위의 R&D 투자국, 세계 최고 기업 환경(WEF 평가, 세계 1위)

* 스핀오프 기업 사례 : Logitec(컴퓨터 주변기기 및 전자제품, 매출 약 25억 USD), Sensirion(센서 등 전자부품, 약 매출 1.5억 USD) 등

– 스위스의 히든 챔피언, 끊임없는 혁신으로 글로벌 경쟁력 유지

* R&D 중심의 혁신 추구 : 1인당 GDP 8만 불 이상의 고비용 국가임에도 기업과 R&D 기관, 정부의 끊임없는 혁신과정을 통해 제조업 경쟁력 유지

○ 협력방향 : 한국 및 아시아 시장을 타깃으로 한 전략적 제휴

* 최근 사례 : 스위스 화장품 및 생활용품 생산 화학기업 A사, 국내에 자체 제품 생산, 유통망 보유 B사의 주식 과반수 인수, B사의 사업을 확대하고, 이를 플랫폼으로 활용하여 A사의 제품의 국내 진출 추진 중

2 신산업 및 R&D·기술협력

신산업 : 블록체인 스타트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추진배경

- 2017년 스위스는 블록체인 기반 세계 가상화폐 발행(ICO) 시장의 70% 차지, 2018년 이후 성장세가 주춤하고 있으나, 스위스 증권거래소에 가상화폐 거래 시장 개설을 추진하는 등 세계 산업을 선도
  * 스위스 추크 주 크립토 밸리에 세계 각국에서 다수의 블록체인 기업 집중, 클러스터 형성
- 2019년 상반기 기준, 스위스의 ICO 규모는 17.8억 달러로 세계 4위, 블록체인 관련 기업규모는 약 800여 개, 이 중 500대 기업의 기업 가치는 400억 달러로 추산
- 스위스 연방, 주 정부는 스위스를 글로벌 가상화폐 시장 중심으로 육성 추진
- 정부·기관의 블록체인 산업 친화적 환경 조성 추진
  * 금융감독기관 : ICO 가이드라인 제시, 기업의 사업모델 홍보부터 ICO까지의 전체 프로세스에 대한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투자 환경 조성

○ 협력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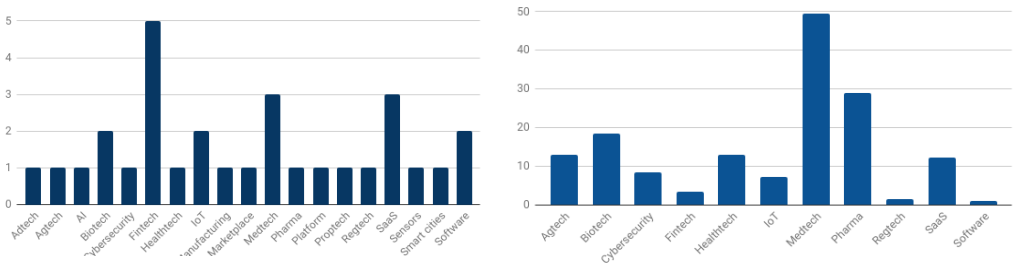
- 한-스위스 지방 정부 간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 우리기업의 스위스에서의 ICO (Initial Coin Offer) 지원
  * 서울시, 부산시, 제주도 등 블록체인 클러스터 육성 관련 스위스와의 협력 추진 중
- 현지 엑셀러레이터를 적극 활용, 글로벌 펀딩 및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한 현지진출 확대
  * 현지 유력 엑셀러레이터 : Kickstart (kickstart-accelerator.com), F10 Incubator and Accelerator (www.f10.ch) 등
  * 한국의 벤처캐피털 A사에 따르면, 스위스 스타트업 기업은 바이오·엔지니어링 등 기술과 하드웨어가 발달되어 있고, 한국의 스타트업 기업은 애플리케이션 化 등 서비스 중심으로 발달되어 있어 상호보완적 협력이 가능하다 함

혁신 R&D 협력

○ 추진배경

- 정부 간, 기관-기업, 기업 간 R&D 및 기술협력수요 증가
- 스위스의 글로벌 기업은 CVC(corporate venture capital)를 통해 외부에서 혁신기술 수혈
  * me-too 제품과 확연히 차별되는 혁신성이 요구되며, 초기 스타트업도 투자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기업 인수 또는 과반수 지분투자형태의 전략적 투자가 일반적임
  * 스위스 CV 투자규모는 2017년 기준 약 1.6억 스위스 프랑으로 추산

스위스 CV의 분야별 투자 횟수 및 규모



투자 횟수(Deal Count 회) 투자금액(백만 스위스 프랑)

자료 : boudkov.com, 2019년 10월 7일

○ 협력 방안

– 양국 기관과의 공동 연구개발·개발 협력 추진

* 양국 정부 R&D 펀드, EU 펀드를 활용한 기업 간 협력 형태의 공동 개발
국내 예시) 해외수요처연계 기술개발사업 R&D 자금지원(www.smtech.go.kr)
현지 예시) Innosuisse international innovation project(www.innosuisse.ch)

– 스위스 우수 대학·연구기관을 통한 기술 개발 또는 미상용화 된 신기술 인수

* 주요 대학, 기업 대상 미상용화 된 신기술 발표회 정기 개최 : ETH Industry Day (www.ethz.ch/industry-day), EPFL Industry day(http://sti.epfl.ch/page-124709-en.html)

– 글로벌 기업의 CV를 통한 혁신 아웃소싱 트렌드에 대응

다. [B2G] 스위스 소재 국제기구 조달 시장 진출

스위스 소재 UN 및 국제기구 조달 시장 진출

○ 시장현황

– 스위스 연방 정부에 등록된 국제기구는 39개 기구로 그중 25개 기구가 본부 역할을 하고 있음

– 제네바소재 국제기구들의 조달규모는 연간 약 80억 달러로 UN 조달 시장의 절반가량임

스위스 연방 정부 등록 국제기구

연번	분류	국제기구	소재지
1	유엔사무국	UNOG(유엔제네바사무소)	제네바
2	유엔전문기구	IBE/UNESCO(유네스코 산하 국제교육국)	제네바
3		ILO(국제노동기구)	제네바
4		ITU(국제전기통신연합)	제네바
5		WHO(세계보건기구)	제네바
6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제네바
7		WMO(세계기상기구)	제네바
8		UPU(만국우편연합)	베른

9	UN 시스템 미적용 국제기구	ACWL(세계통상기구 법률자문센터)	제네바
10		BIS(국제정착은행)	바젤
11		CERN(유럽원자핵공동연구소)	제네바
12		Court OSCE(유럽안보협력기구의 조정 및 중재재판소)	제네바
13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제네바
14		GAVI Alliance(세계백신면역연합)	제네바
15		The Global Fund(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퇴치 세계기금)	제네바
16		ICDO(국제민방위기구)	제네바
17		ICRC(국제적십자위원회)	제네바
18		IFRC(국제적십자연맹)	제네바
19		IOM(국제이주기구)	제네바
20		IPU(국제의원연맹)	제네바
21		OTIF(국제철도수송정부간기구)	베른
22		SC(South Center)	제네바
23		UPOV(국제신품종보호동맹)	제네바
24		WTO(세계무역기구)	제네바
25		GCERF(국제사회참여회복기금)	제네바

자료 : 유엔 스위스 대표부, www.dfae.admin.ch/geneva

– UN 조달 시장에 대한 한국기업의 공급은 재화가 90%를 차지

UN 조달 시장 한국기업 공급품목

상품		서비스	
의약품	87.8%	출장서비스	50.2%
건설	8.4%	수송	28.0%
의료기기	1.9%	편집 및 디자인	11.3%
자동차	1.2%	건강	4.0%
실험기기	0.4%	엔지니어링	2.3%
기타	0.1%	기타	4.3%

자료 : 유엔 스위스 대표부, 2019년 10월 8일

– 국제적십자 조달 시장은 분쟁 지역의 난민구호 활동을 하는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와 자연재해 지역의 난민구호 활동을 하는 국제적십자연맹(IFRC)으로 구분됨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ICRC	324	380	600
IFRC	570(3년 합산)		

자료 : 국제적십자사, 2019년 10월 8일

○ 우리기업 진출 유망분야

– 유망 진출 기관

* ICRC, IFRC 등 벤더 등록 절차가 UN 기구에 비해 간단하고, 공개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조달을 진행하므로 우리기업 진출이 용이

* UNOG, WIPO, WHO, UNHCR, ITC, ITU, WMO 등 한국제품 조달 이력이 있는 UN기구는 한국제품의 품질과 가격에 만족, 국내기업에 호의적

– 유망품목

* 재화 : 구호물품, 의약품, 의료기기, 진단키트, 실험실기기, 차량, 난민시설, 위생용품 등

* 서비스 : 교육 서비스, 번역 서비스, 출판 서비스, 항공 서비스 등

라. [국민] 문화예술 교류 확대를 통한 인적 교류 활성화

양국 간 관광객 교류 현황

○ 양국 간 인력교류 규모는 2010년 이래 증가 일변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나, 편차 해소를 위한 노력 필요(한국 : 스위스 비율, 약 30:1)

– (한국 → 스위스) 2018년 기준 539.2천명, 지난 10년간 4.5배 증가

– (스위스 → 한국) 2018년 기준 18.1천명, 지난 10년간 1.9배 증가

최근 5개년 양국 인력교류 세부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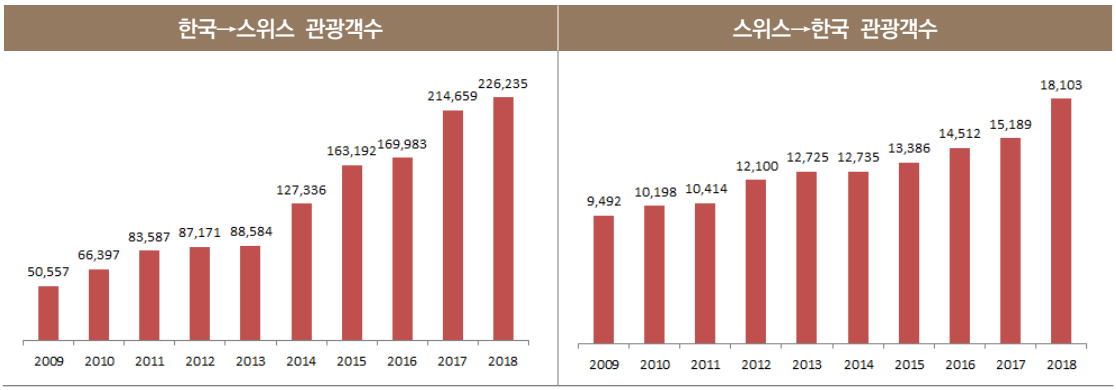
(단위 : 천명, 전년 비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한국 → 스위스	312.3(41)	394.1(26)	411.4(4)	529.7(29)	539.2(2)
스위스 → 한국	12.7(0)	13.4(5)	14.5(8)	15.2(5)	18.1(19)

자료 : 한국관광공사, 스위스 통계청, 2019년 10월 8일

최근 10개년 양국 인력교류 현황

(단위 : 명)



자료 : 한국관광공사, 스위스 통계청, 2019년 10월 8일

○ 문화 교류, 국가 인지도 개선을 위한 문화예술 홍보 활동 확대 필요

– 한국, 기존 무역 투자 홍보 활동 위주의 활동 전개

– 스위스, 기업·기관 연계 문화경제 종합적 홍보 활동 전개

스위스	한국
• Swiss Fund Korea - 주한 스위스 대사관 중심, 한국진출 스위스기업이 스폰서로 문화/과학 홍보 및 인사교류 행사 개최 • Zurich meets Seoul(2019년 9월 28일~10월 5일) - 취리히시, 문화/과학/경제 사절단을 서울에 파견, 종합 홍보 및 교류 활동	• 한국 투자홍보대사(2018~2019년) - Eugen Elmiger(CEO, Maxon Motor) • Impulse Korea(2018, 2019년 2회) - 한국 투자 환경 IR 설명회

Ⅲ. 향후 대(對)스위스 K패키지 실행체계(안)

분야별 실행체계 구성

내용	실행주체	관련 프로그램
[G2G] 정부 간 교역·투자 및 기술협력 환경 개선		
- FTA 강화 및 산업 협력 확대 * 한-EFTA FTA 업그레이드 * 산업 및 기술협력 * 직업교육훈련 협력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부통신부, 고용노동부	- 한-스 정책협의회(2018년 3월) - '한-스 생명과학 이니셔티브 위원회'(2018년 2월 발족, 민관협의체)
[B2B] 주력 전략 산업 및 신산업에서의 기업 협력 촉진		
- 주력 전략 산업 * 스위스 제조업 부품·소재 아웃소싱 및 해외생산 확대 등 글로벌 협력수요에 대응 * 스위스 히든 챔피언과의 협력 확대 - 신산업, R&D·기술협력 * 신산업 : 블록체인 스타트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혁신 R&D·기술협력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KOTRA/중소기업진흥공단/ 산업기술진흥원/부산시, 서울시	-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진흥원 · 양국 공동 R&D 협력 펀드 조성 - KOTRA 사업 · 글로벌 파트너링 · 지사화 사업/월드챔프 · Invest Korea 프로그램 - 중소벤처기업부 · 해외수요처연계 기술개발사업 R&D 자금지원 - 양국 지자체 간(서울시, 부산시-스위스 쥬크시) · 블록체인 산업 협력
[B2G] 스위스 소재 국제기구 조달 시장 진출		
- 스위스 소재 UN 및 국제기구 조달 시장 진출	- 조달청 - KOTRA	- KOTRA · 제네바 국제기구 조달 시장 진출 사업 (세미나 및 상담회)
[국민] 문화예술 교류 확대를 통한 인적 교류 활성화		
- 문화 교류, 국가 인지도 개선을 위한 문화 예술 홍보 확대	- 외교부	

대(對)스위스 K패키지 실행체계(안)

○ 2018년 3월 발족한 한-스 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G2G, B2G 등에서 정부 차원의 협력 아젠다 중점 발굴

* 2019년 중 한국과 스위스 간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우수 의약품 제조기준) 상호신뢰 협정 체결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동 협정체결 시 양국 정부가 발행한 GMP 적합 증명을 상호 인정하게 됨

○ 민간차원의 협력은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산업기술진흥원 등을 중심으로 양국 기업의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 추진

작성자

연번	작성자	직책	소속	Tel	Email
1	**이두영**	관장	취리히무역관	044-503-5301	dylee@kotra.or.kr
2	**남기훈**	차장	취리히무역관	044-503-5302	testkun@kotra.ch

KOTRA자료 20-042

2020 국별 진출전략 스위스

발 행 인 권평오
발 행 처 KOTRA
발 행 일 2020년 1월
주 소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06792)
전 화 02) 1600-7119(대표)
홈페이지 www.kotra.or.kr
문 의 처 경제협력총괄팀 (02-3460-7689)
I S B N 979-11-6490-188-3(95320)

Copyright © 2020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